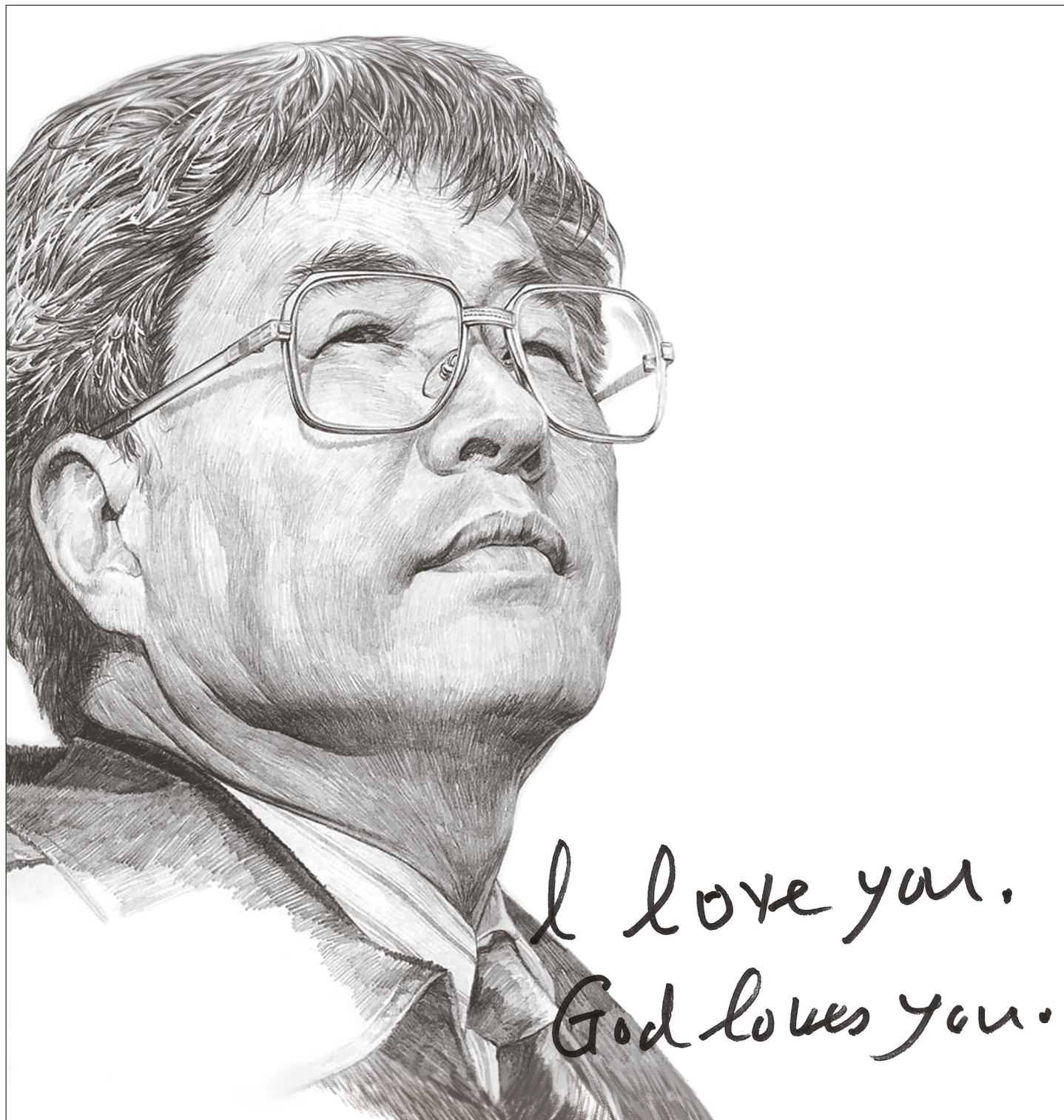






한동인 Magazine
Vol. 11

Handong IN은 한동 안에서의 많은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의 'In'과
한동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간다는 '人'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동인 Magazine은 연 2회 발행됩니다.

발행일 2019. 8 (Vol.11)

발행처 한동대학교 대외협력팀 (학)한동대학교 후원팀
디자인 위로앤아트



Special Theme

- 04 한동대-UNAI 반기문 글로벌
교육원 개원
- 06 한동의 큰 스승, 김영길 초대총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 12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요!
Public Reading of Scripture

Inside

- 18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학부관
코너스톤홀 신축
- 21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강하다!
조정 동아리 암스트롱
- 24 한동샘 유산균 출시
- 26 지역사회 공공디자인
직관으로 디자인하는 법
이진구 교수
- 28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실천하는 RC,
카이퍼 칼리지



People

- 30 거룩한 삶의 실천으로
한동을 변화시키다
강신의 행정부총장
- 32 한 걸음 한 걸음
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리며
이약우 동문
- 34 산나의 하나님 말씀
호산나 동문

함께 엮는 갈대상자

- 36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김운상 동문
- 38 세대의 상식을 내려놓고
세대를 바꿀 꿈을 꾸며
황지민 학우
- 40 복음 전파하는
과학 교사의 꿈을 꾸다
제이디 교환학생
- 42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호수아 장학금
- 46 팀워크 장학생들의 감사

Community

- 50 한동툰
- 51 후원 안내
- 54 기부자 명단



한동대-UNAI 반기문 글로벌 교육원 개원

대계명, 지상명령, 문화명령 따르고 무너진 창조질서 다시 세우는 21세기의 '노헤미야' 키운다

한동대-UNAI 반기문 글로벌교육원(IGE)이 지난 5월 27일 문을 열었다. 한동대가 개교 이래 사반세기에 걸쳐 추구해 온 지성, 인성, 영성의 통합적 전인교육을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으로 확장하여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마 22:37-39), 복음의 전파(마 28:18-20)와 문화 명령(창 1:28)의 수행이라는 핵심 사명을 가지고, 무너진 창조질서를 재건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21세기의 노헤미야(노 6:15)를 길러낼 것이다.

IGE의 김영길 그레이스(GRACE: Globally Responsible Advanced Citizenship Education) 스쿨이 오는 2학기부터 시작하는 전인적 세계시민 프로그램(HGCP) 인증 과정은 한동대 재학생과 전 세계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6개 교과목(18학점) 이수 과정으로서 전 교과목을 영어로 진행하며, 과정 수료자에게는 국제기구, 공공기관, NGO 등에서 인턴십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의 핵심 가치와 정체성, 사명을 지키고 이를 전세계로 확장하는 플랫폼으로서 IGE와 김영길 그레이스 스쿨의 역할과 발전을 기대해 본다.



◀IGE 전경



▲ 장순흥 한동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인재, 지역과 전 세계의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 유엔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회의 회장인 김영길 한동대 초대 총장이 병원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여 영상 메시지로 “한동대가 개교부터 추구하고 실행해 온 사랑, 겸손, 봉사를 핵심 가치로 삼고, 정직과 성실, 책임감의 태도 위에 글로벌한 행동 역량을 기르는 것이 바로 IGE가 추구하는 전인적 세계시민교육이다”라고 강조했다.



▲ 명예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념사에서 “정직(Honesty), 성실(Integrity), 책임(Responsibility)의 정신과 세계시민정신으로 무장하여 보다 좋은 세계를 만드는 데 앞장설 지도자들이 IGE에서 무수히 배출될 것”이라 말했다.



▲ 이재훈 한동대 이사장(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의 IGE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선포와 축도로 개원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 그레이스 채플에서 열린 개원식에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사마란치 IOC 부위원장 등 국내외 많은 축하사절이 참석했다.



한동의 큰 스승, 김영길 초대총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김영길 한동대학교 초대총장이 2019년 6월 30일 새벽 3시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김영길 전 총장은 지난 5월부터 서울 아산 의료원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루었으며, 이후 7월 2일 서울 온누리교회 서빙고 성전과 한동대학교에서 천국환송예배를 드렸고, 한동대학교 IGE 그레이스 스쿨 캠퍼스 한 전에 수목장으로 장례를 마쳤다.

1939년 10월 3일 경북 안동 태생의 김 전 총장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 미주리주립대학교에서 금속공학 석사, 뉴욕 렌셀러폴리테크닉대학교에서 재료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온누리교회 초대 장로와 한동대 초대 총장(1995.2~2014.1)을 역임하고, 2016년 6월부터는 한동대 명예총장을 맡아 대학발전에 매진했으며, 미국 NASA 루이스연구소 연구원, INCO 중앙연구소 책임연구원, KAIST 재료공학과 교수(1978~1995), 한국창조과학회 초대 회장(1981~1997), 유엔아카데미팩트 한국협회 회장(2012.8~2019.6)을 지냈다. 1995년 한동대 초대 총장 취임 이후, ‘공부해서 남 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모토로, 혁신적인 커리큘럼과 기독교정신 기반의 인성 교육으로 대표되는 교육실험을 통해, 교육중심대학이라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항공우주국(NASA) 연구원으로서, 김 전 총장은 NASA 발명상을 2회(1976,1981), 미국 산업발명상 IR-100(1980)을 수상하였고, 귀국하여 풍산금속과 협

력해 발명한 반도체 리드 프레임 ‘PMC-102’ 합금제조기술은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초의 ‘신진국 기술 수출 1호’ 기록으로 남아있다. 국민훈장 동백장(1982), 세종문화상(1986), 올해의 과학자상(1987), 한국기독교선교대상 교육자부문(1999), 제4회 한국기독교 학술상(2004), 2014년 전문인 선교대상(2014)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온누리교회 천국환송예배에서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한동대학교 이사장)는 “하나님은 김영길 장로님의 인생을 모든 에너지는 점차 소멸하고 쇠퇴한다는 이 땅의 엔트로피 법칙이 아니라, 죽어서 소멸되어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소멸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신트로피 법칙이 적용받는 드라마로 연출하셨다. 또한 장로님의 인생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드라마가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이다. 장로님의 순종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소천하시기 며칠 전 ‘나는 죽어도 삽니다’, ‘죽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쁨이다.’ 라고 부활 신앙을 고백하였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다. 가족들에게도 ‘See You Tomorrow’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만날 날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었다. 김영길 장로님이 바로 신트로피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며, 유가족과 추모객들을 위로했다.

한동대학교 천국환송예배에서 최정훈 목사(한동대학교 교목실장)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4:7)의 ‘승리의 삶’ 이라는 말씀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신 후 천국에 계신 김영길 초대 총장님께 ‘Finish well, Good job’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며 전했다.



장순홍 총장은 추모사에서 “저는 후임 총장으로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손잡고 총장님께서 걸어오셨던 길, 또 총장님의 비전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우리 한동대학교를 최고의 인성과 영성의 대학, 가장 인성과 신앙이 좋은 학생을 배출하는,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학생을 배출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별히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천 대학이 많지만, 모두가 세속화 된 가운데 우리 한동대학교 만큼은 세속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둘째, 한동대학교는 비록 포항에 있지만 가장 글로벌한 대학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그래서 온 세계를 품고, 선교를 포함해서 세계인을 도와주는 글로벌 능력을 갖추며,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우리 한동대학교가 가장 글로벌한 대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셋째, ‘공부해서 남 주자’라는 정신을 저희가 잘 이어 받아 배움의 목적이 이웃의 고통과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학생들을 배출하는 한동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그 길이 자갈밭길이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걸어가겠다. 그리고 언젠가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서 총장님께서 계시는 천국까지 그 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겠다.”며 다짐의 마음을 전했다.

김영애 사모는 “김영길 초대 총장이 병상에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내가 예수님을 안 이후로 내 삶은 항상 감사로 넘쳐났다.’라고 고백했다며, ‘한동대학교는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공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자 목표이다. 한동대학교가 세대가 바뀌어도 세속화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서 김 총장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칭찬 받는 한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천국환송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유족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그리고 한동대 졸업생들이 준비한 수 백 송이의 카네이션으로 김 전 총장을 천국으로 환송하였다.

신앙인으로, 과학자로, 교육자로, 81년 동안 이 땅에서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그는 사랑했던 많은 한동인들의 전송을 받으며,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물 떠온 하인들’처럼, 김 전 총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종이였다. 이제 이 땅에 남은 우리들이 그를 뒤 이어, ‘또 다른 물 떠온 하인들’로 살아가길 기대한다.

We love you, God loves you.

김영길 초대총장 추모영상 QR코드
한동대학교 YOUTUBE 채널



추모의 글

김승환 동문 (국제어문 95)

우리 총장님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미소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처음 뵈 95년부터 마지막 병상에서까지
한결같이 함박 웃음을 보여주신 총장님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곳, 부도난 상태에서도 학교를 개교하신 총장님.
다들 무모하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대학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한다며 태산같이 외길을 걸어오신 우리 총장님.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한 상황에서 학생을 뽑은 총장님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 해맑게 학교를 간 우리들이나
그저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서관에 쏙 와서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총장님.
공부해서 남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만 반복하신 총장님.
95년부터 당신의 급여를 동결시켜 한번도 올리지 않은 총장님.
학교가 돈이 없어서 저당잡힌 당신의 집을 은퇴해서야 돌려받고
강연비를 받으시면 그대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흘려보내신 총장님.
마지막까지 남 탓하시는 것을 절대 보여주지 않으신 총장님.
그렇게 정직과 성실을 삶으로 보여주신 우리 총장님.
은퇴하시는 그 자리에서 마저 당신을 용서하라고
고맙다고 말씀하신 바보같은 우리 총장님...

장로님, 믿음의 선배, 바른 선생이며 큰 스승이자
우리의 영원한 총장님인 김영길 총장님 편히 쉬십시오.
천국에서 총장님의 함박웃음을 다시 볼 그날을 소망합니다.
늘 당부하신 것처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수고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민준호 동문 (경영경제 96)

총장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꿈, 비전, 소망... 그 중에 최고의 가르침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혈과 육의 싸움에서는 사망이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원한 영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
님으로 인해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바로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총장님께서 천국으로 떠나셨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페이스북에는 졸업생들이 총장님과의 추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들의 이야기에는 공통되게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나누어준 ‘사랑한다’는 말과 격려의 씨앗은
열매를 맺고 수많은 제자들의 인생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총장님의 맘과 기도로 채워진 지난 20여년,
텅빈 캠퍼스는 하나둘 채워져 갔고, 이제 15,000명의 졸업생과
4,000여명의 재학생이 꿈꾸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직 기독교 대학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하루 또 하루 알아가고 있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꿈과 비전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총장님께서 달려가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정상모 교수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회고해보면, 온갖 역경과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을 세우고 발전시키는 거룩한 사명에
총장님의 탁월한 리더십 하에 미력하나마 동역 할 수 있었음은
저희 교수들에게는 진정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고,
큰 명예이자 영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결실로 청춘어람이 되어, 한동 졸업생들이 국내는 물론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나라 확장에 헌신하고 있지요.

총장님은 학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고,
존재와 삶, 즉 Being과 Doing이 일치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뒤 재지 않고
즉시 응답하며 순종하므로 소명을 따라 살았던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었음을 알기에,
총장님은 이 혼탁한 세대에서 저희 교수들이 따라야 할
참된 선배이자 Role Model이었습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아직도 한동을 위해 할 일이 많은데,
‘왜 지금 데려 가셨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저희 생각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상상해 보면,
하나님께서서는 아마도, 아니 틀림없이, ‘내 사랑하는 아들 영길아,
너의 고난과 수고가 이제껏 차고 넘쳤으니
이제는, 내 품에 안겨서 편히 쉬거라’ 하시겠지요?

교육을 통하여 온 세상을 밝히면서 그 깊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숨겨 들어가서
결국 드러내어 전파되도록 하는 거룩한 사명은,
저희 교수들을 포함한 한동인들에게 넘겨주세요.
저희도 총장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이어 받아
멈춤없이 진행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때에
먼저 가신 총장님을 뒤따라 가겠습니다.

박남주 직원 (교무팀, 前 비서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저 뿐 아니라 모든 한동인들은 총장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총장님의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셨던 모습이 그립습니다.
장거리 미국 출장길에도 항상 일반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설 겨를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대학 한동을 알리고자
주말마다 단체와 교회로 특강과 강증을 모두 감당하시면서
그 때 받은 강연료는 모두 갈대상자로 후원하셨던 총장님.
학교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사비를 내어 놓으셨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당신의 지갑을 열어 베푸셨던 총장님.

총장님의 성실하신 모습이 그립습니다.
매일 새벽 무릎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셨던,
매일 출근하시면 가장 먼저 4층 기도실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한동에서의 첫 대화를 나누셨던 총장님...

총장님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학생들, 교수님들, 직원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I love you God loves you” 사랑의 고백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총장님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총장님의 죽음마저도 사용하심을 느낍니다.
잃어버린 첫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시간,
또 다른 한동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총장님을 통해 한동 안에 가득했던 오해를
이해로 바꾸셨습니다.
한동 곳곳에는 총장님께서 뿌리신 눈물의 기도로
역경의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동인들을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곁에서도 한동을 위해 중보하실 총장님을 그리웁니다.

이완 직원 (대외협력팀, 콘텐츠융합디자인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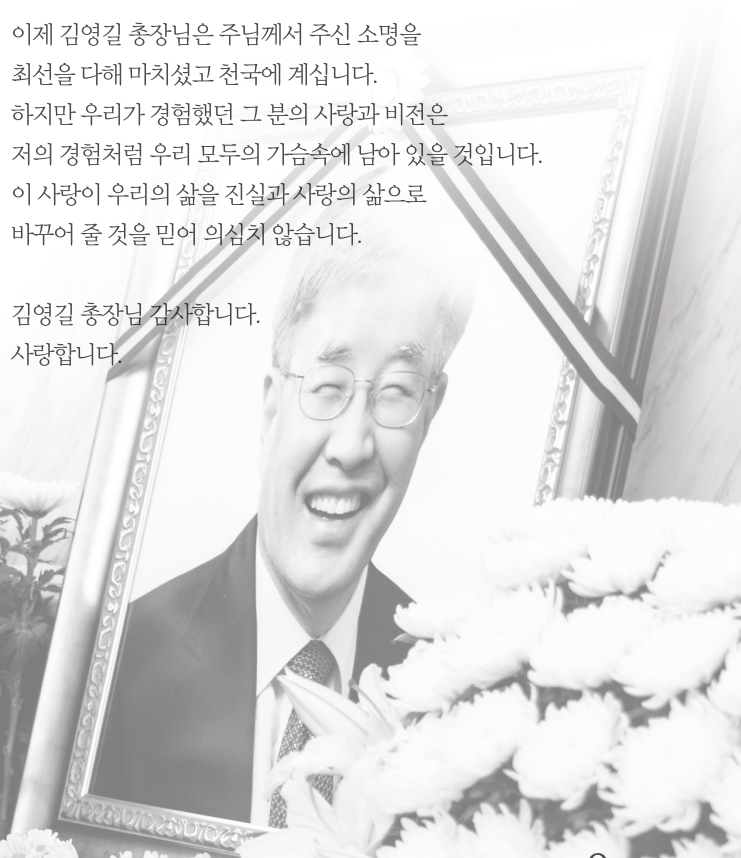
총장님의 첫인상은 푸근한 아저씨였습니다.
95년 1월 이곳에 면접 시험을 보러 왔을 때 총장님은
인자한 표정으로 학생들과 악수하고 포옹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다. 좋은 결과로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처음 뵈었지만 낯설지 않은 포근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원이 된 2003년,
학교에 다친 여러 어려움은 태산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때 본 총장님은 기도의 리더십을 가진 선장이셨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풍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방향을 잃지 않고, 한동이라는 방주를 굳건히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총장님의 열정과 비전을 씨앗으로 삼아서
한동을 세우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그레이스 스쿨은 하나님께서 총장님께 주셨던
“공부해서 남 주자,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비전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김영길 총장님의 비전과 우리 한동의 비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앞으로의 한동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김영길 총장님은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최선을 다해 마치셨고 천국에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그 분의 사랑과 비전은
저의 경험처럼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진실과 사랑의 삶으로
바꾸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영길 총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재규 장로 (온누리교회)

저는 김영길 장로님을 KAIST 선배 교수와 온누리교회 선배 장로로 알았습니다. 한동대에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따르지 못한 미안한 후배입니다.

지난 2001년 김영길 장로님이 억울한 옥고를 치루시는 중, 성령의 이끌림으로 위로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랑하는 따님 종민이를 먼저 떠나보내셨을 때 또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되는 편지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돌아보며 김영길 장로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편지는 감옥에 계신 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부러운 김영길 선배님’이었습니다.

부러운 김영길 선배님,

어처구니 없이 감옥에 계신 당신이 고초를 받고 계신 것조차 부러워 이렇게 마음을 전합니다. 살갗의 아픔은 영혼의 기쁨으로 이길 것으로 믿기에 당신의 영혼을 부러워하며 이 글을 드립니다.

제가 KAIST 교수로 온 소식적에 신소재공학과 김영길 교수님은 한국을 대표할 세계적 학자라고들 하여 학자로서 부러웠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없이 얻을 수 없는 연구결과가 은혜로 주어진다기에 더욱 더 부러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아 헤매 때 창조과학회를 섬기시는 충성된 모습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구름에서 봄날 진달래 꽃잎과 가을 노란 은행잎에서 그리고 나의 호흡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거하고 계셨으나 그 증거에 앞장선 당신이 부러웠습니다.

당신이 장로로 섬기는 온누리교회의 새신자 된 저는 당신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낙인임을 기쁨으로 증거하며 외치는 그 모습은 나의 삶은 무엇이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식막한 과학의 캠퍼스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던 당신께서 느닷없이 한동대학교로 가야만 한다던 그 모습, 그 길은 선교사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복 받은 학자요, 연구자이지 행정가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 아끼던 발자국을 돌아보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떠나시던 그 모습과 그 기도, 그 순종이 부럽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 계셔서 부럽습니다.

노랗 돈 때문에 찢어지는 대학을 맡아서도 늘 히죽히죽 웃으시니 보는 제가 오히려 걱정됩니다만, 그런데도 한동대는 우뚝 서는 것을 보니 김영길 총장님의 역할은 스스로 연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꾀대 된 그 모습이 부럽습니다. 집요한 모함과 음모로 당신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무리들이 드디어 당신을 감옥에 보내고 기뻐하니 아, 가소롭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학교와 학생을 사랑하신 대가로 치르는 고초가 당신을 얼마나 값지게 할지. 당신의 죄로 말미암지 않은 고초이기에 그 억울함을 부러워합니다. 그 고난은 당신을 영원히 아름답게 빛을 것이므로 스승이 없다는 스승의 날이면 늘 부끄러운 제 모습. 그러나 감옥 속의 참 스승을 찾을 수 많은 당신의 제자들! 연구 업적 평가에 매여 나의 것을 내어주지 못하는 내 모습이 더 부끄러워지며 학생들의 사랑받는 스승 총장 된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당신의 신앙이 시작된 가정, 그 가족과 함께 밥 먹고 물 마시,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김영애 권사님. 그분의 피눈물 나는 기도가 당신의 고통보다 더 큰 아픔으로 계속되기에 그 사랑받는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당신의 고초의 나날을 그냥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러나 가장 아름답게 이 시련을 매듭지으실 하나님! 한순간도 멈추심 없이 당신의 고초가 안타까워 내 가슴에 눈물 흘리십니다. 그 사랑 받으심을 저는 부러워합니다.

혹시 이 고초를 못 이길까 늘 위로코자 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항상 당신 곁에 계시기에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고초 없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 깊은 만남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위로 받기에 충분하지만 그러나 저의 작은 사랑과 위로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아픔을 아는 인간으로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대하심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당신을 부러워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부러워합니다. 당신의 고초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하심을 부러워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2001년 전한 편지였습니다. 그 후에 김영길 총장님은 무죄방면 되셨고, 2014년까지 19년 동안 한동대를 섬기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복 받은 평안한 노후인 듯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췌장암이 도둑같이 찾아왔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을 또 상상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딸 종민이가 갑자기 병을 얻고, 아빠 걱정하실까봐 말조차 하지 못하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제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부러워할 수도 없는 이 일들... 위로가 불가능한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부러워한다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편지를 또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고 온전히 믿는 자녀에게는 독생자 예수님을 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알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에서 김영길 장로님과 김영애 권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믿음을

의 조상 되신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과 부활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이별의 아픔을 아시면서도 떠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며 떠나시는 당신의 마지막 모습. 그것은 “이제 다 이루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다 이루신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천국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계시고 종민이도, 하용조 목사님도 계시니 좋으시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별을 슬퍼하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도 눈물 흘리신 것 같이 남은 가족에게 주님께서 빈 자리를 온전히 채우시옵소서.

김영길 장로님의 일생을 허락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과 같은 시대를 살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최효경 동문(前 비서실, 언론정보문화 97)

사랑하는 우리 총장님, 사모님.

황금 들녘에 드리워진 가을 햇살처럼, 한 줄기만 잡아도 온 가슴 녹는 햇살처럼 더없이 너그럽고 인자한 미소로 비춰주신 사랑에 여전히 기대어 삽니다.

사랑하는 우리 총장님, 천국 문 들어 서실 때, 믿음의 선한 싸움 넉넉히 이긴 예배자 들어설 때에 천상의 승전가가 천국에 가득 울리고 믿음의 선진들 모두 나와 환호하고 감격하고, 그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아직도 며칠째 끊이지 않았겠지요.

80년을 240년같이 살고 가신 믿음의 알곡들에 천국 곳간 문이 닫히지 않고, 역사에 없던 천사의 행렬이 이어져 우리 총장님 이 땅에서 드리던 모든 기도와 응답과 믿음의 고군분투와 찬송들이 보물처럼 뽕서 하나님 목에 걸어둔 건 아닌지요.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니?” 하나님 물으실 때에, 우리 총장님 멋쩍은 미소 지으시며 두서너 가지 말씀하실 때, 아니다 아니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국의 밤이 새도록 잊어버린 일조차, 무심코 던진 한 마디조차 기억하고 꺼내시며 두런두런 영원의 시간 속에서 산책하며 칭찬받고 계시겠지요.

세상의 그 어떤 미소가 총장님의 미소처럼 한 영혼을 일으키고, 한 인생을 일으키고, 한 가정을 일으켜줄까요! 우리가 청년 되었을 적에 불러주신 이름, 쓰다듬어 주셨던 머리, 늘 보여주신 환한 미소가 믿음의 가보처럼 마음에 걸려있어요. 총장님의 겸손과 순전함과 우직한 믿음의 행보가 아니었다면, 그 미소가 그렇게 가슴 깊이 파고 드는 빛이 아니었겠지요. 언제나 그립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 삶은 비록, 믿음의 텃밭 정도로 소소하고 소박하지만, 한동인 중에 더러는 믿음의 지경이 드넓은 이들도 있고, 무엇보다 혼자로는 작은 믿음의 지경을 가졌을지라도, 이 믿음들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겠지요.

총장님 비록 한동을 떠나시고, 더욱이 이 땅을 떠나셔도 하나님 영광의 빛 뒤로 가리워진 총장님 이름이 우리 한동인들 마음에 또렷하게 살아있어요. 한동이 하나님의 대학이 되도록 쏟아 부으신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 고난과 역경 속에 예수님과 함께 쓰셨던 가시 면류관, 손의 못 자국, 믿음의 거장, 김영길 총장님의 천국 입성으로 천국의 승리의 함성소리가 제 귓가에 맴도는 듯 합니다. 다만, 아직 사명을 다하지 못하여 이 땅에 남은 자로서, 이제 더 분발하고 부끄럽지만, 묻어두고 잊고 살았던 믿음의 재능과 유산들을 꺼내어봅니다.

총장님 아프시단 소식 듣고, 병문안 가려 하니 부끄럽기만 하던 제 삶,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무언가를 이루고 가꾸고 가려 했는데 어느덧 천국에 가버리신 우리 총장님...

비서실 문지기로 살며, 총장님의 헌신과 고난과 충성스러움과 예배자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기에 사랑의 빛,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총장님께 받은 사랑의 빛이, 또한 사랑의 빛이 누구보다 제가 큼니다. 우리 한동인 하나 하나 천국에 들어설 때, 하나님 곁에 서서 함박웃음 지으시며 함께 나와 저희를 맞이해 주세요. 총장님! 하나님의 미소는 눈이 부실지라도 그리웠던 총장님 미소에 먼저 다가가 안길 것입니다.

총장님께 부끄럽지 않게 소명의 삶, 사명의 삶 살겠습니다. 사모님은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우리 한동인들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잘 코치해주시요. 한동이 더욱 더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동이 더욱 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도록, 장성한 한동인 더욱 일깨워 주시도록, 우리 총장님 자리를 천국으로 옮기셨나 봅니다.

당신의 모든 삶과 죽음조차도 거룩한 주의 메시지! 총장님...

이 슬픔이 아직도 너무 곁돌고 가슴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내며 아파하고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아버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미소 비춰주신 것 평생 다 못 갚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사랑하는 우리 총장님 2019년 6월 30일, 또한 이날을 기억하겠습니다, 1939년 10월 3일과 함께.

졸업생 중 총장님 미소 최다 수혜자, 비서실 문지기였던 97학번 최효경 올림



Am 7:30
모임 전 준비

Am 8:00
다과 & 교제

Am 8:20
드라마 바이블
듣기+읽기

Am 8:50
강의실로~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요! Public Reading of Scripture

2019년 1학기부터 한동대학교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새롭게 시작했다.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함께 읽는 것'이다.

한동 공동체가 말씀을 읽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 이 세대를 본 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한동인이 되길 기대한다.



신예린 (글로벌리더십 19)

한동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신앙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신앙에 있어서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 법이다. 마음을 지키려면 '말씀'과 '기도', '순종' 이 세 가지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뿌리깊은 인간의 본성, 나약함이다. 이제까지 그 약함을 상대하지 못해 나 혼자 다짐하고 작심삼일 무너지기 일쑤였다. 그런데 성경읽기 모임은 나의 연약함을 공동체를 통해 이겨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값진 경험을 안겨주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읽기 모임을 통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순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나누는 과정은 일종의 선포, 다짐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바라는 점, 힘든 점만 털어 놓았는데,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 또한 나는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 공동체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잘 몰랐는데, 이번을 계기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경험할 수 있었다. 각자 다른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참으로 귀했다. 다양한 나눔들은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특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어 좋았다. 자리잡은 '말씀 읽기'습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방학 때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겠다.



조이수 교수 (경영경제학부)

PRS는 문자 그대로 함께 말씀을 읽는 것인데요, 현재 드라마 바이블을 이용해서 함께 말씀을 들으며 읽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고 회중이 듣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PRS를 통해 일주일에 한 번,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다는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으므로 같이 읽는 것 만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기려 RC에서는 작년부터 성경통독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마침 강신익 부총장님의 주도로 PRS가 시작되었고, 함께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장기려 RC도 PRS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려 RC에서 처음 PRS를 시작하는 날 많은 교수와 사모들이 참여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5~6명의 교수들이 매주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주차에는 기말고사 기간이라 참여하는 학생이 매우 적은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한동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한동에서 PRS 및 FGBS가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 초창기에는 화요일 8교시에 일체의 다른 모임을 하지 않고 FGBS시간으로 할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전통의 회복과 함께, 월요일 1교시는 PRS 시간으로 할애되는 새로운 전통이 생겨나기를 기대합니다. 한동의 모든 학생이 재학 중에 최소한 성경을 한 번은 통독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PRS모임은 성경을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저를 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약 4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현장 속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말씀을 들으며 이해할 수 있었고, 평소에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용의 말씀들을 새롭게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공지를 보고 혼자 참여했던 터라 아는 지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월요일 아침 일찍 교내 카페 인브리즈에 도착해서 정성으로 준비해 주시는 맛있는 아침 식사를 받아, 성경을 읽기 전 같은 테이블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하며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풍족했습니다. PRS 성경읽기를 통해 함께 성경 말씀을 들으며 읽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특히 바쁜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시간을 구별하는 훈련을 통해 매주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팀모임에서도 따로 드라마 바이블 성경읽기 모임을 신청하여 학기를 마치는 16주차까지 성경읽기를 진행했습니다. PRS 성경읽기를 통해 모임이 없는 날에도 말씀을 차분하게 읽어 나갈 수 있었고, 드라마 바이블 앱을 설치하여 매 주말 고향으로 오고가는 기차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함께 모여 읽을 수 있는 모임과 지원이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김정빈 (공간환경시스템 14)



김도형
(글로벌리더십 19)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살아오다가, 한동대학교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읽기와 같은 한동에서의 신앙 공동체는 살면서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여전히 부족했고, 위화감을 느껴 모임을 가게 된 것을 후회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처음에는 신앙 모임이나 동아리를 꺼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성경읽기 모임에서 팀 사람들과 신앙적으로 교류하니, 기독교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믿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읽기 모임은 저와 같이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성경읽기 모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서로의 힘든 순간을 말하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극복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 사회의 파편화가 심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힘들었던 순간들을 공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주 친한 친구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들었던 순간들을 나누고, 하나님이 그 순간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희 팀 공동체를 더욱 친밀하고 의미있게 만드시는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읽기 모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인데, 이 구절을 통해 저희 모두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읽기 모임’이라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해 주시고 말씀을 읽게 된 것 또한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에 성경읽기 모임이 열린다면 다시 한 번 꼭 참여할 것입니다. 그 때는 단순히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나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월요일을 시작한다. 처음엔 호기심에 PRS를 시작했다. ‘어떤 분위기일까?’, ‘아침도 준다는데?’ 라고 생각했다. 성경을 함께 읽는 것, 30분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함께 하는 힘”을 경험할 수 있었다.

PRS에 참여하면서 내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성경의 큰 틀을 이해하고, 단순히 읽거나 듣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1주차 때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영상과 관련 책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Why?” 라는 질문을 던지고 구조를 잡아가며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PRS에 참여하기 위해 일요일 저녁에 무리하게 늦게 자거나 약속을 잡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규칙적인 사이클로 한 학기를 지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다. 1주차에는 혼자 PRS에 참석했지만, 점차 한 공동체(2명의 언니와 1명의 동생, 총4명)를 만들어 교제하게 되었다. 아침식사를 하며 한 주간 삶을 나누고, ‘성경의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어떤 부분이 좋았다’라는 얘기도 나누었다.

PRS는 다른 공동체에 비해 누구나 참여하기 쉽고 모임에 대한 부담이 적다. 일상 생활에서 주님을 더욱 자주 찾고 싶지만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면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학기에는 PRS를 통해 더 많은 한동인들이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김성실
(경영경제 14)



서충모 (ICT창업 15)

1년 동안 매일 점심 12시에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분주한 한동의 삶 속에서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과제와 시험을 앞두고 잠이 부족할 때면 당장이라도 기숙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는 한동의 청년들이 있었기에 한 학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바이블 시간이 소중했던 이유는,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문제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때론 저를 압도하고 낙망하게 했지만, 말씀 앞에 설 때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샬롬’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서니,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서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바이블을 통해 말씀을 보며 약속의 땅을 향해 진격하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대학교, 한동대학교의 교수님, 선배, 교직원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종보자들로부터 시작되고 이어진 영적인 유업과 믿음의 유산들이 계속해서 다음세대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김다복
(ICT창업 16)

나는 한동에서 기도와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즐겼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 것은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 시작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른 아침 드라마바이블로 성경을 읽으며 교제하는 공간인 '기도의 장막'을 알게 되었고, 기도의 장막에서 진행되는 성경읽기 모임에 꾸준히 동참하려고 노력했다.

그 다음 학기에는 점심 시간에 기도의 장막 성경읽기 모임을 섬기는 섬김이가 되어 '점심의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이끌었다. 모임을 이끌면서, 매번 집중이 되지만은 않았다.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는 적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내가 섬김이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경을 읽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없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만지고는 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바로 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의 장막에 있으면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들리는데, 그 때마다 성령님 생각이 난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도 성령님께서 항상 내 옆에 계신 것이다. 친구와 있을 때도 친구가 나와 대화하지 않고 핸드폰만 하면 섭섭하기 마련인데, 말씀 읽으러 와서 내가 성령님 옆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많이 섭섭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루하루 노력하니, 말씀을 듣고 읽는 순간들 자체가 너무 즐겁고 좋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도 보내주시기 시작하셨다. 이제는 종강을 해서 기도의 장막 모임을 갈 수는 없지만 나 혼자서도 말씀을 즐기며 읽으며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2학년 전공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이런저런 핑계로 소홀하게 되면서, 결국 모든 일에 점점 연약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성경을 읽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공공대고 있을 때 PRS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시우
(ICT창업 18)

“바쁜 한동인의 삶 가운데, 한 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함께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은혜와 새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는 PRS 홍보 문구가 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PRS를 가서 한 번 경험해 보고 나니, 바쁜 삶에 어느덧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선배, 후배, 친구들 모두 모여 함께 성경을 읽는 모습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PRS로 모이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쁘고 지친 한동인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보는 것은 어떠세요? PRS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위해 엉금엉금 걸어오세요!

Designeering for others,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학부관 코너스톤홀 신축

CORNERSTONE HALL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안경모 교수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의 학부관인 코너스톤홀이 신축되었다.

코너스톤홀은 2018년 7월 13일 착공해 2019년 2월 19일에 준공되었다. ‘모퉁잇돌’이라는 뜻의 코너스톤홀은 4층의 공간으로 이뤄져 있어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학생들이 넓고 쾌적한 전용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코너스톤홀은 익명의 후원자와 교내 교수가 기부한 총 48억으로 건립되었으며,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동문들이 창업한 제이유엔건축사사무소와 (주)ITME&C에 의해 건물의 설계, 감리 및 시공이 이루어졌다. 코너스톤홀은 첨단 강의실, 카페, 교수연구실, 세미나실, 도서관, 설계 실습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너스톤홀이 신축되기까지 많은 이들의 헌신과 기도가 필요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안경모 교수에게 들어봤다.

코너스톤홀의 첫 시작은?

우리 학교에서 학부마다 공간을 배정하는 공식이 있어요. 공학계, 인문계는 학생 수에 따라 학부 면적이 결정 돼요.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는 건축, 토목, 도시로 이뤄져 있어서 1인당 스튜디오가 필요해요. 스튜디오는 자기 책상이 하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필요한데 공식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학부의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보니 학생이 공사로 많이 오게 되면 어떤 때는 설계수업을 할 공간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복도에서 수업하고 그랬거든요. 학교에 새로운 학과가 생기고 사업단도 생기고 하면서 공간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따로 우리 학부를 위한 건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한 4년전부터 계획을 하다가 2015년 10월 30일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동문들 모임에서 졸업생들, 재학생들과 100명 정도 모여서 1,000평정도 되는 단독건물을 5년 내에 기부금을



받아서 짓자.’ 하고 얘기가 되었어요. 한 달정도 지나서 동문의 지인분이 기부를 하시겠다고 해서 만났어요. 그 분이 처음에 20억정도 기부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제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가 왜 건물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싶은지에 대해 말씀 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될 때 인프라 구조물, 공장들을 지으면서 자연을 많이 훼손시켰거든요. 우리 학부 전공이 건축, 토목, 도시가 있는데, 자연 훼손된 것들을 복구, 회복시키고 환경친화, 생태적으로 건축 토목 도시가 되도록 교육하고 있고 이를 위해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 분이 30억을 기증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획한지 한 달만에 30억이 모이고 그 후 동문들, 교수들이 추가적으로 기부해서 이 건물을 짓게 된거죠.

‘코너스톤홀’의 의미는?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건물명 공모에 참여를 했어요. 그 중 나온 ‘코너스톤’이라는 단어는 ‘모퉁잇돌’이라는 의미예요. 초석이라는 뜻도 있고. 성경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모퉁잇돌이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잖아요. 우리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이 모퉁잇돌이 되어서 건축, 토목, 도시, 자연 등 훼손된 것들을 새롭게 복구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정해졌습니다.

건물 설계와 시공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학교 안의 부지가 딱 차 있어서 처음에 학교에서 허가해 준 부지는 비탈길이었어요. 약 40억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는데, 설계를 다 해놓은 후 시공비를 계산해보니 기초공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현재 건물이 세워진 곳으로 옮겨서 주어진 예산 안에서 건축을 했죠. 그리고 기부자께서 ‘이 건물의 설계와 시공을 졸업생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설계와 시공을 다 졸업생들 회사에서 했어요.

코너스톤홀에서 기대하는 교육의 방향은?

이제 대학 교육은 교수가 강의실에서 지식 전달하는 것에는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한계가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은 학생들이 서로에게 배우는 거예요. 더 잘하는 친구에게 배우거나 선배에게 배우면 더 빨리 배우고 동기부여도 되죠.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은 지식전달 수단의 하나일 뿐이에요. 모두 같이 모여 선배배간, 동료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했으면 해요.

코너스톤홀의 활용은?

이 건물은 최소비용으로 지어졌어요. 벽과 천장 콘크리트가 노출되어있는 이유가 마감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게 하려고 한 것도 있죠. 이 건물이 한동대 졸업생들의 ITM이라는 회사가 지었거든요.

베트남의 NIBC의 자회사로 이 회사가 한국에 진출해서 지은 첫 건물이에요. 졸업생들이 이윤을 거의 안 남기고 최소의 비용으로 건물을 지어줬어요. 졸업생들과 건축과 교수들이 함께 건물을 지음으로써, 학생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4층 스튜디오는 모든 학년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3층에는 교수실과 연구실이 있고 2층은 강의실, 컴퓨터실, 1층은 다른 학부와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모든 학부가 사용할 수 있는 코딩스페이스와 같은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학생들에게 바라며?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게 직업으로 이어지면 더 좋죠. 이 건물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혼자하는 것 보다 같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아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협업할 수 있고, 그게 궁극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의 모토처럼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는 공간을 만드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너스톤홀에서의 첫 학기는?

공시 학부생들이 공간과 장비의 부족으로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들어온 3D 프린터 외에 전산실 장비와 가구도 추가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새롭고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건설, 공사/공무원 시험준비반, 대학원 특강, 공모전 등 학부에서 학부생들을 위해 준비해주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코너스톤홀에 대한 학부생들의 반응은?

무엇보다 공시 학부생만을 위한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생활관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지만, 뉴턴홀에 있던 예전보다 공시 학부생들이 더 활발하게 밤낮으로 학업과 모임을 위해 코너스톤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간시스템공학부생들의 새로운 다짐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는 가족입니다. 코너스톤홀은 특별히 졸업생들과 교수님들께서 공시 학부생들을 위해 마음과 뜻과 헌신에 다한 열매입니다. 학생들이 학비 걱정없이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전 학부생 등록금 0원 또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바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후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시 학부생들 또한 졸업생분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훈련 받아서 꼭 배워서 남 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학부생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김정빈 학부대표 (공간환경시스템 14)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강하다! 조정 동아리 암스트롱

조정은 보트 위에서 노를 뒤로 저어 속도를 겨루는 수상 스포츠이다.

강인한 근력과 지구력, 빈틈없는 팀워크를 자랑하는 한동의 조정 동아리 암스트롱(Armstrong)은 올해로 창단 9주년을 맞이 하였다. 2011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매 가을학기마다 12명의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매주 2번의 실내훈련과 1번의 수상훈련을 하고 있다. 실내 훈련은 교내에서 실내 조정 기구를 이용하여 자세와 동작을 익히고, 체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수상훈련은 매주 토요일 오전 형산강에서 배를 직접 타면서 4명의 합을 맞춰가는 훈련을 한다.

모든 훈련의 목표는 매년 여름에 있는 조정 대회이다. 탑승 인원에 따라 8가지 종목으로 나뉘는데, 암스트롱이 주로 출전하는 '유타포어'는 한 배에 노를 젓는 선수 4명에 배의 방향을 결정하고 균형을 잡는 '콕스(Cox)'를 더해 총 5명이 탑승한다. 출발선에서 결승선까지 '콕스'의 지휘 아래 선수들은 일치단결하여 노를 저으며, 완벽한 합을 맞춰 물살 위를 가를 때의 짜릿함은 젊음의 열정을 불태우게 한다.





김구현 감독

한동대학교 조정 동아리 암스트롱의 훈련지도를 돕고 있는 김구현입니다.

경상북도조정협회 전무이사와 포항시조정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던 10년 전, 한동대학교에서 생활체육 수업에 조정 종목을 편성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조정을 사랑하는 조정인으로서, 또 협회 임원으로서 조정 종목의 저변 확대를 고민하던 저에게 주어진 귀한 기회라 생각하고, 그 때부터 수업과 더불어 암스트롱을 지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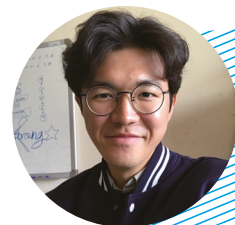
십 수년간의 조정선수 시절과 또 십 수년간의 조정지도자, 임원으로 살아온 제 인생에서 조정이라는 스포츠의 소중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일반인 조정 체험의 장을 마련하거나 타 대학에서 조정 수업 및 조정 동아리 활동을 도우며 조정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암스트롱의 '암스둥이'들을 만나며 그토록 바라던 조정의 저변 확대가 활기를 띠었고, 지금은 암스트롱이 저에게 큰 자랑거리이자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순수하고 믿음이 강한 '암스둥이'들의 옆자리를 계속 같이 하고 싶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형산강 위를 달리는 임준엽입니다.

남자 팀에서는 1번 '바우(Bow: 보트 가장 앞쪽)' 자리에서 배에 추진력을 더하고, 여자 팀에서는 배의 균형을 잡고 방향을 맞추는 '콕스'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조정을 통해 혼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조정은 주어진 거리의 2/3는 체력으로, 나머지 1/3은 정신력으로 가야하는 스포츠입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스스로의 한계를 짓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 부은 뒤에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습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여러 번 마주합니다. 이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통해 정신력을 단련하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훈련 뒤에 성장해 있는 체력은 삶에 활력을 더합니다.

저는 암스트롱에서 "No pain, No gain"이라는 격언은 참으로 맞는 말이고, 이러한 혼신의 노력 끝에 맞출 수 있는 성장의 기쁨은 정말 달다는 걸 배웠습니다. 배를 탄 4명의 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 모두를 관통하는 짜릿함과 일치감 또한 잊히지 않는 순간들입니다.

임준엽 회장
(전산전자 14)



이홍익 학우
(기계제어 16)

신입 멤버 이홍익입니다.

지금 암스트롱 9기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서 조정이 쉬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매번 훈련할 때 마다 숨이 턱 끝까지 차고 힘들어서 바닥에 누워 버리고, 그러다가 또 훈련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같이 열정적으로 훈련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기록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이번 5월 5일부터 1박2일동안 '제12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조정대회'에 나갔습니다. 첫 대회여서 그런지 엄청 긴장되고 설레었습니다. 결과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대회가 끝난 후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암스트롱의 매력은 '사람'입니다. 조정은 네 명 또는 여덟 명이 같은 타이밍에 동일한 시간 동안 균형을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힘으로 노를 저어야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배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뛰어나다고 절대 좋은 기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상대팀과의 경쟁만큼이나 동료와의 협력이 중요한 조정은 그런 매력을 가진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HANDONG SaM See a Miracle

한동대학교 첫 고유브랜드를 런칭하다. 한동샘 이야기



한동샘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한동샘은 2018년 9월 1일 설립된 한동대학교 최초의 고유브랜드 회사입니다. 한동샘은 정직과 성실을 핵심가치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동대학교의 교육철학을 사업 영역에서 실천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제품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좋은 변화를 주는 것을 본질적 가치이자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개발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한동대학교 자체 연구기술력이 뛰어난 분야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면역세포들이 약 70% 넘게 장점막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장의 상태와 우리 건강이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장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즉 생균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점막을 훑고 지나가면서 장 미생물과 각종 세포와

활발히 교류하며 장세포를 자극해 장벽을 든든하게 만들고, 인체에 침입하는 병원균을 잘 막아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유산균 위드워터는 세계적인 유산균 석학으로 잘 알려진 빌헬름 H. 홀잡펠 교수님이 연구진과 함께 개발한 제품입니다.

홀잡펠 교수는 1986년 유산균 연구를 시작으로 미생물 관련 SCI 논문 300여편, 과학저서 약 70편을 저술하고 독일 연방 식품연구소장을 역임한 프로바이오틱스 전문가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을 때 균주(어떤 균을 선택할지), 균수(균의 양을 얼마만큼으로 할지), 장내전달방법/Delivery Method (어떤 방법으로 장내에 도달하게 할지) 이 세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조절하여 장내환경에 유익한 제품을 만드는 과정은 매우 까다로울 뿐 아니라 유산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홀잡펠 교수의 33년 동안의 연구력을 바탕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물에 타먹는 유산균 위드워터만의 특별함은?

일반적으로 유산균을 생균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보관과 유통을 위해서 동결건조(Freeze-dried) 시켜 분말 상태 만듭니다. 동결건조 상태의 유산균은 대사적으로 활성이 멈추어져(Metabolically dormant state) 있기 때문에 바로 섭취하게 될 경우 위산과 담즙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장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장에 부착되기 어렵습니다. 위드워터는 한동대학교 홀잡펠 교수팀이 고안한 특별한 아미노산 등의 조합을 유산균과 함께 넣어 물에 섞었을 때 동결건조된 유산균이 다시 동결건조 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함께 포함된 당성분이 유산균을 둘러싸 보호하는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산균의 장내 생존율이 높아지고 장부착능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드워터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전용 용기에 분말을 넣으신 후 물을 표시선까지 부어 30초이상 충분히 섞어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제품라인은 위드워터 밸런스 와 위드워터 인텐시브 두가지 입니다. 위드워터 밸런스는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은 분이나, 장환경이 형성되는 어린이, 혹은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분을 위한 제품입니다. 위드워터 인텐시브는 배변이 심하게 어려운 분이나, 민감한 장으로 고생하는 분을 위한 제품입니다. 두 제품 모두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이 함유되어 있어 유산균의 증식을 도와 효능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위드워터 판매수익은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위드워터를 비롯한 한동샘의 제품을 구매하면 수익의 일부가 장학, 교육ODA, 한동대학교의 교육진흥사업 등을 지원하고, 홀잡펠 연구소 연구개발을 돕는데 쓰이게 됩니다.

개발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은?

사업 시작부터 출시에 이르기까지 기적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의 식품은 식약처의 규제와 제한이 엄격해서 저희의 새로운 기술이나 방식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익을 내기 전까지는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희의 약함이 한동을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홀잡펠 교수님 연구진을 비롯하여, 자문을 해주신 HEM의 지요셉 박사님과 박한은 매니저, 제품 패키지 개발을 도와주신 졸업생 장성은 동문, 모든 협력업체와 학부모기도회 학부모님들, 그리고 한동샘 팀원들까지 정말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 오피스 화이트보드에 적혀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긍정은 훈련이다” 매일의 긍정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한동샘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샘의 꿈과 비전을 나눠주세요.

한동샘을 통해 많은 분들이 삶의 좋은 습관과 좋은 변화를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의 제품을 드시면서 육체가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때문에 힘든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선한 콘텐츠를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요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불편한 장으로 고통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샘은 제품 출시 전부터 유산균, 마이크로바이옴, 장건강 등 다양한 주제를 쉽고 재밌게 풀어가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유익하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며 성장해 나가는 한동샘이 되고 싶습니다.



구매 및 제품 문의
1600-4211

홈페이지
www.handongsam.com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Handong SaM

인스타그램
Handongsam 혹은 월간변

지역사회 공공디자인 직관으로 디자인하는 법

2019 독일 IF 디자인어워드 수상자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이진구 교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이진구 교수입니다. 1997년에 한동대 디자인 학부 창설 교수로 부임했고, 어느덧 2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 학교에 왔을 때 한동대는 한나님의 대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이 슬로건이 굉장히 독특하고, 도전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입시 미술'이 없는 한동에서 콘텐츠융합디자인 학부는 근본부터 타 학교 디자인 학부와 다릅니다. 저는 제도권 미술의 '암기식 미술'을 배우지 않은 학생에게 새로운 디자인 교육을 해보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기성 디자인' 교육과 다른 교육환경을 가진 한동에서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디자인연구소 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디자인연구소는 한동대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와 연계된 대학 연구소입니다. 전반적인 디자인 연구 및 수행 뿐만 아니라 디자인 사회문제, 지역문제 등을 연구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글로벌리제이션(Glocalization)은 세계화와 지역화의 혼합이라고 봅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전에도 지역디자인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포항에서 기쁨의 교회, 여남 설머리 물회 마을, 꿈틀로, 나루터 길 등 지역의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선정작 '설머리 물회 마을 BI'를 소개해 주신다면?

이번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선정작 '설머리 물회 마을' 로고는 크게 3가지 요소에서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한글로 이루어진 로고에서 물고기 모양이 그려지는 데서 오는 '조형성'입니다. 단순히 물고기 모양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이미지가 주는 균형이 있습니다.

둘째로 공공서비스로서의 기능입니다. "설머리 물회 마을"의 지도 조형물은 '정보 제공'의 기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판을 통유리로 만들어 바다의 경치를 망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한 사람의 창조질서인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전시키는 디자이너의 옴은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떠오르지 않는 순간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번 '설머리마을 조형물'은 무심코 보고 있던 종이 페트병에 A4 용지를 감았다가 모양이 마치 바람결을 떠올리게 해서 곧바로 디자인한 경우입니다. 디자인은 '직관', 즉 순간의 영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감을 부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게 되는 부분이지요.

디자인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방법은?

"직관으로 디자인하라", "직관은 통찰한다", "상상하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배운 것, 성공한 것, 실패한 경험에서부터 비롯된 본인의 '직관'으로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삼성, 애플 모두 기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변화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맹종하지 않고 하나를 깨달아 여러 곳에 쓰자. 한번도 해보지 않은 영역에서 학생들이 시도해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모든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주제와 관련해 가장 가까운 자기 경험을 만들어서 스스로 적용하면 됩니다.

학생들은 평생동안 새로운 도전을 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배우기만 하면 도전하지 못한다." 즉, 암기는 테크닉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잘 그린 그림도 결국 '테크닉' 밖에 없습니다. 머리로 디자인을, 방법론, 콘텐츠를 만들어 논리화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내 대부분의 디자인 학부는 '테크닉' 교육에 집중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만 '머리로 하는 디자인'을 중요시합니다. 한동의 교육은 손(hand), 머리(기획), 감성(영감), 직감, 상상력, 인문학적 소양으로 이루어집니다. 머리는 보이는 것을 찾고, 가슴은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지요. 과학자의 이성, 시인의 마음, 화가의 손이 합쳐진 디자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DESIGN
AWARD
2019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선정작
본 어워드는 주로 기업에서 진행
하는 독특한 디자인이 출품하는데,
BTS BI 브랜드 상을 받을 정도로 전
문적인 디자인 집단이 참여함.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실천하는 RC, 카이퍼 칼리지

한동대학교에는 고유한 특색을 가진 6개의 RC 공동체가 있다. 그 중 2013년에 만들어진 카이퍼 칼리지는 변혁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전통의 선봉장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뜻을 이어받아, 성경의 진리를 종교적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
(1837-1920)

카이퍼 칼리지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11:36)’라는 주제 성구를 바탕으로 핵심가치인 ‘Lordship’을 실천하고 있다. 카이퍼 RC에 소속된 600여명의 학생들은 하용조관에서 생활하며 각자 13개의 팀에 배치되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구성된 카이퍼RC 학생회는 생활관 내에서의 규칙과 생활규범을 정하고 카이퍼 공동체만이 공유하는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카이퍼 칼리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화 행사는 바로 ‘카이퍼 블루데이’이다. 블루데이는 카이퍼RC를 대표하는 색인 파랑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행사로, 약 3일간 드레스코드인 푸른색 계열의 복장과 소지품을 갖추어 행사에 참여하면서 RC 구성원들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는다. 행사 기간 동안 생활관 내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인증하는 팀에게는 다양한 시상이 제공되

며, 사진들은 학기말에 진행되는 카이퍼 사진전에 전시되기도 한다. 블루데이에는 포토존 행사뿐만 아니라 공기대회, 보드게임 등의 다양한 놀거리도 준비되어 팀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블루데이 이외에도 카이퍼 RC에서는 매 학기마다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열리는데, 학기 말에 열리는 카이퍼 사진전은 한 학기를 마무리 하기에 앞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추억으로 남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되었다. 이러한 기획의도에 맞게 카이퍼 사진전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지친 카이퍼 학생들을 위해 소소한 행복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지리적 특성과 분주한 학업문화로 인해 문화생활을 즐기기가 어려운 한동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열리는 카이퍼 시네마는 카이퍼 RC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추천 받아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영화를 상영한다.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소소한 간식까지 제공하여 바쁜 학기 중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매 학기 열리는 카이퍼 풋살대회와 여자 피구대회는 카이퍼 RC 학생들의 건강한 학업생활을 응원하며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주로 소속 팀 별로 경기 팀을 이루어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함께 운동을 즐기고 응원을 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진다.

카이퍼 RC에서는 매년 진행되는 전통적인 행사 이외에도 매 학기 새로운 행사들이 열린다. 2017년에는 카이퍼 육상 대회를 개최하여 RC 내 다른 공동체원과의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2018년 처음 기획된 문 꾸미기 행사 ‘문문’은 많은 학생들의 참여 아래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카이퍼 RC 학생들은 이들만의 전통적인 문화와 더불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면서 삶 속에서 주되심을 실천하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카이퍼를 통해 배운 공동체의 가치

카이퍼 RC의 핵심 가치인 'Lordship', 즉 창조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식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구현하는 일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입학 전 RC를 선택할 때 카이퍼의 핵심 가치가 저의 삶의 가치와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제 욕심과 의지에 의한 목표를 위해 살아가기 보다는 매 순간 제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더불어, 카이퍼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RC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때로는 실망스럽기까지 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카이퍼 RC 공동체 속에서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며 꽃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카이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존재의 전 영역 중에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곳은 단 한 치도 없다."라는 말씀은 카이퍼 RC의 모토인 아브라함 카이퍼의 뜻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카이퍼 RC의 가치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구현하는 일에 앞장서며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단지 종교의 영역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실천하고 싶습니다. 카이퍼 RC는 가족 같이 돈독하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바쁜 학업 생활과 각자의 고민들로 힘들어하는 학우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행복한 기억들을 남겨주는 가족 같은 카이퍼 RC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시운 학우
(언론정보문화 18)



노찬우 학우
(ICT창업 18)

거룩한 삶의 실천으로 한동을 변화시키다

강신익 행정부총장

강신익 행정부총장은 2013년 3월부터 한동대학교에서 행정부총장과 ICT창업학부 교수로, 프라임 사업과 가디언즈 프로그램, 2019학년도 1학기 부터 시작된 PRS(공동체 성경읽기)를 통해 학생들을 지성과 영성을 갖춘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 학기를 보낸 강신익 부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2013년 갈대상자 소식지 인터뷰에서 “의미있는 인생 후반전을 한동에서 보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한동에서의 지난 6년의 의미는?

‘한동대학교’ 하면 떠오르는 의미 있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책 <갈대상자>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대학, 팀과 RC 제도, 무전공 입학제도 등이 그 예이죠. 저는 그 단어들에서 더 나아가, 제가 직접 한동에 의미 있는 단어들을 추가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교수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문제 해결을 잘 하는 사람’, ‘글로벌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회사 조직에 비해서 학교 조직은 저의 결정에 대한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니다. 특히 한 학기에 가르칠 수 있는 학생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파급력을 넓히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열어주셨고 그 중 하나가 선교사 자녀 후원 프로그램인 가디언즈 프로그램입니다. 그 외에도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 문제해결방법론 수업을 통해 작게나마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지난 6년간 제가 한동에서 느꼈던 보람이자 의미입니다.

행정부총장으로, ICT 창업학부 교수님으로 다양한 일들을 하셨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을 나눈다면?

제가 행정부총장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바로 프라임 사업입니다. 저는 돈을 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을수록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업비를 쓸 수 있다는 의미인데, 저는 한동대학교에 보다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프라임 사업비를 사용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에 따라 프라임 사업비는 대부분 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에벤에셀관 설립과 시설정비, 기자재나 시스템 구축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우 보람이 있었습니다. 프라임 사업의 일환으로 아직까지 개발 중에 있는 커리어 매칭 플랫폼은 학생 개인의 학업 능력 등을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기업을 매칭해주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취업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해 아쉽지만 행정적으로 다양한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ICT 창업학부의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면서 ‘만남’을 얻은 것도 참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한동 가디언즈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24명의 학생들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8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팀 교수로서 팀을 담당했던 것 역시 매년 소중한 인연을 만나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수첩을 만들어 학생들과 깊은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PRS(공동체 성경읽기)의 유익함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지난 겨울, 저는 PRS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는 맨하탄에 있는 Grace&Mercy 재단을 방문해 그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공부했



습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매주 월요일 아침 8시에 인브리즈 한동대점에서 PR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가 한동에서의 마지막 학기인 만큼, 시작을 잘 닦아놓고 가고 싶은 마음에 더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주 1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공동체 성경읽기 모임에 참가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그룹을 형성해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소그룹 PRS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변화하려면 영혼이 변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학생들이 일주일에 40분 정도는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꾸준히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분량을 약속하여 성경을 읽는 방식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디오로 성경을 들으면서 눈으로 글을 따라 읽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 방법의 하나로 드라마바이블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바이블을 통해 성경의 구조와 내용을 보다 쉽게 머릿속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PRS를 계기로 말씀이 영성의 기반이 되는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동과의 만남을 어떻게 이어가고 싶으세요?

한동은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동대학교를 떠나서도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기부금이나 후원 프로그램이 그 예이지요. 또 지난 수십 년 간의 기업 생활과 6년 반 동안의 한동 생활에 대한 내공이 훗날 한동의 미

래를 그릴 때 필요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학교 펀드레이징의 활성화를 놓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 특히 한동 동문들과 함께 진행하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수업과 관련하여, 현재 한동대학교의 영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서 더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00% 외국 학생들로 구성된 수업에서 영어 강의를 듣는 기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면 학교를 떠나서도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의 학생들에게 도전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동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인재로 잘 성장하여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멋진 인재로 성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한동인들이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특히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에서 모든 판단의 근거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겠지요. 또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처럼 자신의 분야 내에서 꾸준히,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도전정신과 끈기가 합쳐진다면 훗날 멋진 인재로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동에서의 훈련을 통해 세상을 향해 멋지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리며

이약우 동문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태연학교는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초,중,고교 그리고 전공과 과정을 가르치는 특수학교로 1988년 개교하여 울산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곳이다. 한동에서 공부하고 졸업하여 태연학교에 교사로 재직 중인 이약우 동문을 만나 특수교사로서의 삶과 한동에서의 배움에 대해 들어보았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5학번 이약우라고 합니다. 국제어문으로 졸업을 했고 2010년 초까지 사회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며 포항에서 지내다 지금은 고향인 부산에서 한 아이의 아빠로 육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일 울산으로 출퇴근하며 특수교육을 하는 교사로 조금 정신없고 힘들기도 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태연학교를 소개해 주세요.

1988년도에 개교하여 울산에서는 특수교육기관 중 역사가 제일 깊은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초창기 한동대학교처럼 수목으로 둘러싸인 전원적인 분위기의 학교입니다. 최근에는 '찬솔'이라는 물휴지 등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과 울산시청 내 "I Got Everything" 카페를 운영하며 장애인 학생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는 매년 업무와 담당 교과목이 바뀌는데 올해는 고등부 교과수업과 일주일에 한번 장애인 재활 시설로 가서 교육을 하는 순회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교사를 선택하신 계기는?

학교를 졸업 후 회사와 학원에서 일하며 저에게는 교육분야가 좀 더 적성에 맞다고 느꼈고, 사교육 분야에서 일하면서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생기고 쌓이면서 교대입시와 특수교육 편입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았습니다. 고민하고 기도

하면서 특수교육과로 편입을 결정했고 현장실습과 학습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저와도 잘 맞아서 지금까지 특수교육 교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교사로서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성은?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계속 발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이러한 발달을 이끌거나 도와주는 과정이며 특수교육은 조금 더 나아가 그 발달에 대한 기다림과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학생들마다 개별적 특성과 특징이 다를 것을 고려해 조바심 내지 않고 매순간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교사로서 힘든 순간과 보람은?

힘든 순간과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저도 사람인지라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거나 노력해도 안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힘들지만 그 시간을 인내하며 당장의 결과물을 얻기보다 시도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으로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에서 성과를 보이는데, 이것이 저에게 보람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아무래도 첫 제자였던 한 여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중간에 전학을 가 3년이 좀 넘게 저와 수업을 했었는데 신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힘든 점이 많았지만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저를 유독 잘 따라라서 저도 수업이 즐겁고 신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선생님'이라고 해맑게 웃으면서 저를 부르던 모습이 종종 떠오릅니다.

한동에서의 배움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학교 제도적인 측면과 생활적인 측면,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활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당시 신설 학교이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초중고 동창들보다 더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는 벗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들로 인해 많은 위안과 삶의 동기를 부여받기도 하고 어찌다 만남을 가지게 되더라도 그 시절을 떠올리며 추억에 젖기도 합니다. 둘째로, 학교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워크듀티'나 '사회봉사', '아너코드'가 담고 있는 가치들이 저에게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이나 사회 여러 계층에 대한 경험, 그리고 자존감과 겸손함, 스스로에 대한 믿음 등을 배울 수 있었고, 이것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저에게 좋은 자양분으로 작용 하였습니다.

한동의 후배들에게?

한동대학교는 무전공입학을 하고 스스로 전공을 결정합니다. 각자가 허락된 상황에서 최대한 많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 보시고 스스로의 전공과 진로를 결정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어떤 경험이라도 그 경험을 통해 경험한 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과 시선이 달라지고 또 깊어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시간이 걸리고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것이 이 세상속에서 굳은 심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산나의 하나님 말씀’

호산나 동문



소개 부탁드립니다.

01학번 경영경제학을 전공한 호산나입니다. 한동대를 졸업한 후 신학을 공부했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뉴욕 IN2 온누리 교회에서 어린이 부서를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산나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입니다.

‘산나의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나에게도 남자 친구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동대에서 1학년 때부터 매일 밥을 같이 먹고, 같이 다니며 가족처럼 지내던 제 단짝에게 남자 친구가 생겼을 때입니다. 항상 내 옆에서 밥을 먹던 친구의 옆자리가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을 때, 그 허전함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 친구는 제게 그만큼 특별했습니다. 기숙사에서 같이 야식을 먹으며 미래를 꿈꿨고 앞으로 이를 가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각자 직업을 가졌고, 결혼을 하고, 남편이 생기고,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가 암으로 천국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꼭 뭔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 때 떠오른 것이 ‘친구의 아이들에게 들려줄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엄마가 되어 보니 어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대신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때 친구는 라스베이거스에, 저는 보스턴에 있어서 친구의 아이들을 만나 직접 말씀을 전해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말씀을 올리면 언제든 친구의 아이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절대 유튜버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열린 공간에 제 창작물을 올려놓을 만한 위인이 아닙니다. 또한 카메라나 조명 같은 장비에 대한 지식도 아예 없었고, 영상을 편집할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는 촉박함, 그리고 ‘산나의 하나님 말씀’ 채널의 대상이 딱

4명(친구 아이 2명과 내 아이 2명)이었기 때문에 첫 편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산나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느끼는 보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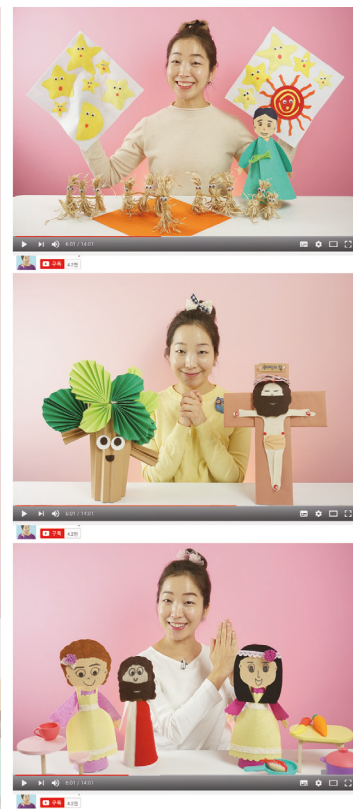
‘산나의 하나님 말씀’ 영상은 4명을 위한 영상이었었는데, 요즘은 온 세계에서 잘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특히 ‘산나의 하나님 말씀’ 영상을 사용하여 교육 부서가 없던 교회에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기쁩니다. 어린이를 위한 예배는 보통 일주일에 한번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아이들을 위한 말씀을 전합니다. 최고로 많은 아이들이 모였던 예배가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주에 4000명에게 전해집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니, 아이들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 꽤 많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영상을 보는 아이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어차피 영상을 보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수많은 말씀이 심겨지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저를 ‘산나 이모’, ‘산나 언니’라고 불러줍니다. 산나 이모 덕분에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다는 말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구나’라고 느낍니다.

자녀들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나누세요?

저는 제 아이들과 ‘산나의 하나님 말씀’ 영상을 같이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잘 모를 때는 찾아보고 말해주겠다고 답한 적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질문이 얼마나 예리한지, 순간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또, 기도제목이 있다면 아이들과 진솔하게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권합니다. 가정에서 하는 기도는 통성 기도하



가족 모든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하는 기도 방법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지라도 스스로 소리 내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십시오. 아마 어린 아이들의 기도에 놀라게 될 겁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 서로를 더 알게 되고, 서로를 더 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인도 하시는지 가족 모두가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한동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동대를 졸업할 때까지 전도사가 되리라는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직장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졸업 후 직장에서 인턴을 시작했는데 저의 길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길은 생각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나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 해 줄래?’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렸습니다. ‘YES!’를 외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한 뒤, 정신을 차려보니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를 곰곰이 돌아보았습니다. 제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자’는 생각이 들어 신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신학교에 들

어간 후, 교회에서 유치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은 내가 평생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 삶과 제 일은 그전에 생각하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자신을 곰곰이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해 보십시오. 많은 조건이 다 맞아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게 전도사는 매력이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를 위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의 평가나 여러 가지를 고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영상을 만들다 보니 기술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때때 마다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처음 ‘산나의 하나님 말씀’ 채널의 대상은 4명이었는데, 지금은 상상도 못한 숫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은 창조적이고, 소망이 있으며, 기쁨이 있고,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마음에 소망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가슴이 설레는 일이라면 그 길로 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김윤상 동문

저는 멕시코 치아파스주, 코미탄 도밍게스에서 익투스 공동체 소속 선교사로 자비랑, 웹페이지 관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20일 밤, 저는 선교 센터로 복귀하는 중 고속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사고와 동시에 의식을 잃었고, 출혈량이 매우 많아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응급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 후에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24일간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3회에 걸쳐서 장수술을 했고, 패혈증과 폐렴까지 겹쳐 의사들에게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약 세 차례 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해 자가 호흡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폐에 불어 넣는 산소의 농도와 압력에 비추어 볼때 의학적으로는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식이 없던 이 기간 동안 많은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첫번째로는 악한 영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예수 보혈'이라는 말을 외쳤더니 그들은 머리를 쥐어 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악한 영의 리더들은 낮은 계급의 영들을 혼내면서 제가 예수 보혈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저는 깨어 있을 때마다 더욱 강력하게 예수 보혈을 외쳤고, 악한 영들의 계획과 그들의 진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악한 영의 리더가 저에게 휴전을 요청하며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로도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저의 삶을 계수하셨고, 가치 있는 부분만을 뽑아 내셨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제 삶에서 예수님께 인정 받은 순간들이 너무나 적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찬양, 예배, 수련회, 교회 학교, 세미나, 봉사, 성가대 등 교회 활동을 했던 시간들이 아닌 오직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이만이 가치있다고 계수되었습니다. 모든 활동 안에 내 마음의 동기가 바로 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가치있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유일한 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밖에는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식을 찾고 깨어났지만 음식은 커녕 물 한방울도 마실 수 없는 상태였고 여전히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태 파악이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서 큰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날 데려가시는게 더 낫지 않을까란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익투스 공동체(Centro Educativo Ichthus)

학교를 통한 교육선교 공동체로, 초,중,고교 교과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 외에 아침 묵상, 저녁 기도회, 성경 공부, 리더십 교육 등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멕시코에 크리스찬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가족 : 김윤상 동문, 방민경(아내), 김예준, 김예성, 김예왕(자녀)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며 저의 몸의 수치들은 계속해서 좋아졌고, 자가 호흡이 가능해지고, 물을 한 방울씩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기력함, 고통과 불안함 가운데 있었으나, 제 가족은 제가 살아 있어서 감사하다며, 깨어나서 감사하다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니 함께 감사하자며 옆에서 저를 계속 격려하고 기도하며 저의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면서 부서진 다리를 재건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혈전 용해제를 투여했는데, 이로 인해 이전에 수술했던 장이 다시 터지며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혈을 해야 하는데 제게 맞는 피가 없어 의식이 있는 채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병실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아 밤새 눈을 부릅뜨고 버티던 중, 의사가 피를 한 팩 들고 왔습니다. 저와 동일한 혈액형이 아니었으나 방법이 없어 수혈을 진행하였고, 다행히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약 3시간 떨어진 도시에 밤새 기사가 달려가 동일한 혈액형 한 팩을 갖고 와 수혈을 받고 다시 소생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14일 기적같이 한국땅을 밟았고 한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 4월 17일에 퇴원하여 현재 일상에 적응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병실에서 아무 것도 못 하고 누워 있을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중보 기도자들을 일으키시고, 중보기도 그룹들과 교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제 기도를 하면서 시들했던 믿음이 살아났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살아났다, 교회가 살아났다 등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분들의 삶을 회복 시켜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셨습니다. 제가 평생을 선교하며 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 다니며 믿음을 세우고자 해도 도저히 꿈도 꿀 수 없을 만큼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이 누워만 있던 저의 상황을 통해 순식간에 이루셨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서 철저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상황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으셨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땅에 살며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몸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냈지만, 이 시간을 통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제 삶에 간섭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확신과 위로가 되었고, 삶에서 진정한 감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동나눔 공모전 수상작

세대의 상식을 내려 놓고 세대를 바꿀 꿈을 꾸며

황지민(글로벌리더십 19)

돌이켜보면, 나는 주류와는 거리가 있었다. 어릴 때부터 농어촌 지역에서 생활하며 전교생이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고등학교 역시 비슷한 규모의 학교였다. 내게 선행 학습은 먼 얘기였을 뿐더러, 공부 자체에 흥미도 없었다. 동시에 목회자 자녀로 살아오며, 타인의 기대라는 프레임에 갇혀 사는 것에 익숙했다. 나의 언행이 부모님의 평판에, 그 평판이 목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다. 그래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익숙했다.

그랬던 내게 고등학생이 되어 소망이 생겼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 고등학생으로 숨 쉬었던 3년이란 시간 동안, 단 한 순간도 이 바람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말로만 들었던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 되어서, 내가 보고 배우는 것들은 불합리의 연속이었다. 처음에는 막연히 손가락질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이가 모두 교육을 불편해 하는 모습을 세상에 가지고 나온 것이 모두 다르다고 외치지만, 이들을 획일적 기준으로 줄 세우는 위선을 그 후에는 바꿔보고자 했다. 학생회장으로, 경기도의 청소년 단체 의원으로, 또 교육청의 학생 스태프로 부조리를 지워내 보고자 했다. 계속해서 계란을 던져댔다. 성적으로 줄 세워 배정하던 기숙사는 바뀌었고, 유명무실의 자치기구를 살려놓았고, 주류에 속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한 세상을 바꾸기에 나는 너무 어리고 여렸다. 대학, 성적, 편의라는, 목적이 되어버린 수단들을 바꿀 수 없었다. 지금껏 우리에게 세상은 대학보다 사람이, 성적보다 사람이, 편의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입으로 강조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구조를 행동으로 바꿀 생각은 없어 보였다. 치쳐버린 내게 그때는 다 그렇다고, 오히려 지금이 그리울 거라고 위로해주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며, 얼마나 더 힘들게 살아야 한숨 쉴 자격이 생기는지 묵묵히 간지럽게 답답했다. 그즈음 입시에 본격적으로 발을 딛으며 ‘거짓말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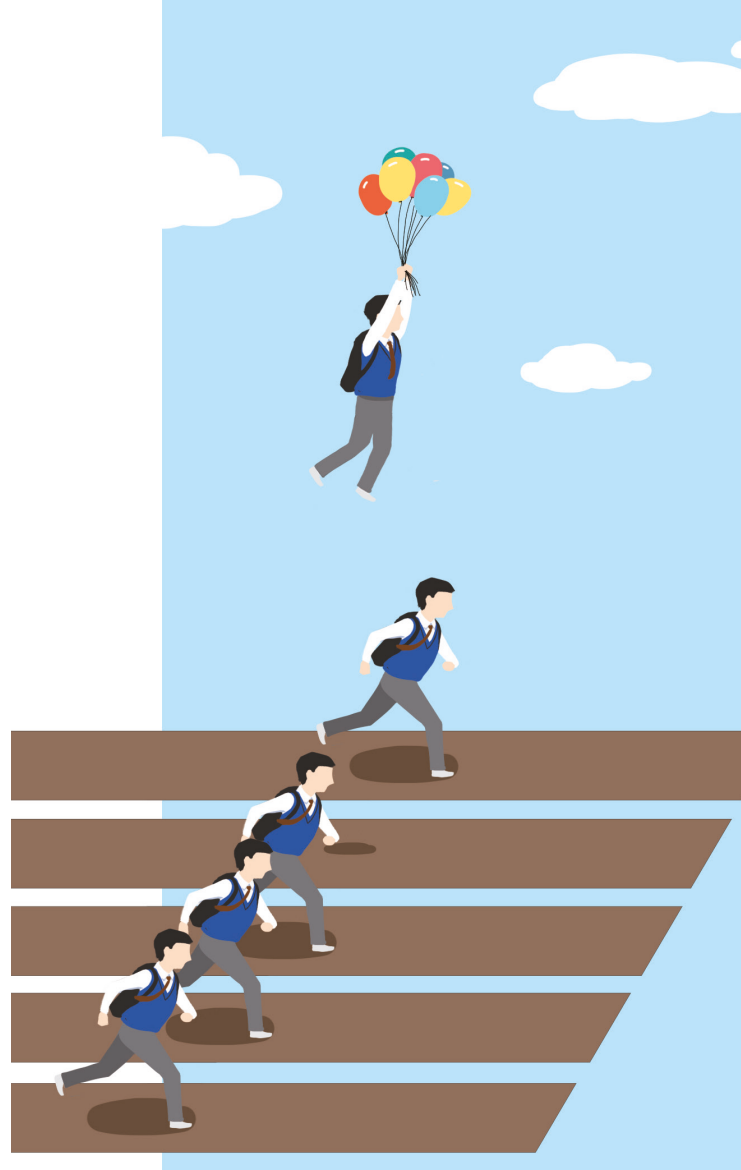
방법’을 배웠다.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자기소개서에 ‘사실’로 기록되어야 하는 건 ‘했던 것’이 아닌 ‘했을 법한 것’이다. 그것이 능력이었고, 세상에서 말하는 ‘합격 비결’이라는 것이었다. 난 남들 말을 빌려 미련한 사람이라서, 다른 거짓말은 참 잘해왔어도 그건 내 짧디짧은 삶을 속이는 것 같아 그러지 못해 아름답게 포장할 수 없었다. 주위에서는 포장 없는 내 선물이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며 돌을 던졌다. 내게 옳은 길은 너무도 험하고 또 좁았다.

지칠 대로 지친 내게 “Why Not Change The World?” 라는 한동의 슬로건이 다시 다가왔다. 이 슬로건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다. 함께 봉사하던 선배를 통해 한동을 전해 들었고, 그의 자신 있는 간증 또한 들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한동은 나에게 여느 학교와 다를 바 없는 곳이었다. 한편으로는 한동에 기대하고 싶지 않은 만큼, 후회하고 싶지도 않았다. 속은 샘 치고 한동에 대해 알아보았고, 알아볼수록 조금씩 한동에 소망이 생겨났다. 그 곳의 가치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고, 선배의 권유로 G-impact 캠프에 신청을 했다. G-impact 캠프를 통해 머리모만 그리던 한동을 체험해볼 수 있었다. 그때까지도 다시 한동에 올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가졌던 모든 생각들을 털어놓았다. 교수님의 토크 콘서트 시간에 손을 들고 여쭙보았다. “고등학교에 다니며 거짓말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라도 한동을 오는 것이 옳을까요, 한동을 포기하는 것이 옳을까요?”라고. 조금 뚝을 들이시더니 마이크를 드셨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공항이 어두운 상태에서 파일럿들은 줄지어 있는 유도등을 보고 착륙을 준비합니다. 점 하나하나를 바라보면 판단할 수 없지만, 줄지어 있을 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학생의 선택 하나하나가 큰 결과로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 그 선택들이 모여서 옳은 방향, 또는 그렇지 않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나의 선택은 현실과 맞지 않라며 손가락질 받는 옳음이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나를 흔들었고, 입시 경쟁 속에서 옳음의 가치가 희석되는 순간마다 나 자신을 조금씩 옳음을 내려놓고 있었다. 그런 내게 교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을 택하는 것이 어렵고 미련해 보이더라도 옳다는 것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내게 대학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해주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입시가 끝날 때까지, 흔들리는 나를 버티게 했던 기둥 중 하나가 되어주었다.

원서를 접수하고 결과를 받아드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어디까지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보았다. 타인의 슬픔에서 자신의 아픔에 대한 위안을 찾았던 이들, 본인의 성취에 취해 후회할 언행들을 뱉어내던 이들까지. 그들 사이에서 나 또한 매일같이 합격을 원하며, 마치 등급이 매겨진 가축이 된 것 같았다. 등급이 높은 식육은 많이들 찾길 나름이다. 사람들은 매겨진 등급을 기준으로 숭상과 폄해를 당연시했다.

나조차 내가 손가락질하는 이들과 같이 물들어간다는 사실은 나를 더욱 아프게 했다.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할 때쯤, 한동대 1차 합격 발표를 보게 되었다. 너무도 소중한 기회였기에 밤을 새워가며 면접을 준비했다. 버스 시간도 고사장 입실 시간보다 1시간가량 앞서 도착할 수 있도록 예매를 했다. 포항까지 데려다주시겠다는 부모님을 만류하고 나서 잠이 들었다. 문제는 내가 준비할 수 없는 곳에서 터졌다. 경기도에 폭설이 왔고, 버스가 2시간가량 연착되었다. 안내방송은 날이 추우니 안에서 대기하라고 했지만, 발이 시린 줄도 모르고 밖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입학처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문제이기에 편의를 최대한 봐준다고 대기실 입실 시간이 아닌, 면접 시작에 맞춰 면접 고사장으로 바로 이동하라는 말을 했다. 초조한 마음으로 한동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렸을 때의 시간은 58분이었다. 한동에 두 번째 온 내가 2분 안에 고사장을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런데 입학사정관님과 선배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내 손을 잡고 뛰어주어 면접 고사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얼굴도, 그 무엇도 모르는 이들이 나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 한동의 따뜻함을 처음 느낄 수 있었다. 면접이 끝나고 발표가 날 때까지도, 한동에 발을 디딜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크지 않았다. 마지막 1년은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에 성적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평균보다 한참 낮은 내 성적으로 합격하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건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합격을 했다. 선생님들께서는 내 손을 붙잡으시며 기적과 같은 일이라며 축하해 주셨다.

나는 한동의 신입생이 되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인 한스트에서 명예서약식을 하던 중에 마냥 눈물이 흘렀다. 나의 욕심보다 남의 바람에 맞춰서 살아왔기에 내 감정을 외면하며 살아왔는데, 가장 힘겨웠던 시기에도 나오지 않았던 눈물이 흘렀다.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곳으로 왔구나. 그토록 그리던 곳에서 숨을 쉬는구나. 내가 가졌던 가장 큰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눈물을 흘리며 느꼈던 감정은 기쁨도, 슬픔도 아닌, 안도였다. 그리고 담당교수님을 처음 뵈었을 때, 말씀을 드렸다. 학교다운 학교에 다니고 싶었다고. 벌써 선배님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너무 행복하다고. 물론 이곳이 완벽한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정직과 성실의 가치를 바라고 모인 사람들이 숨 쉬는 한동이지만 사람이 사는 곳이다. 나부터가 죄악 투성이인데 무결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동에 속한지 세 달이 지난 지금도 문득 떠오른다. 옳은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셨던 교수님, 현동홀 앞에서 배려로 얼굴조차 모르는 나를 기다리셨던 입학사정관님과 선배님, 면접이 끝나고 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짧은 편지를 건네었던 선배님, 한스트 기간 동안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선배님들까지. 한동은 분명 세상과 구별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한동에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라는 꿈을 꾸며 준비하고 있다. 내게 주님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강박을 벗겨내 줄 한동의 사람들을 허락하셨고, 배움과 학업의 진정한 목적 또한 허락하셨다.

한동은 모르고 보면 특이한, 알고 보면 특별한 대학이다. 신입생 전원 자율전공, 성적에 제약받지 않는 전공 선택, 무감독 양심시험, 교수님과 함께하는 팀제도 등 특이한 요소 천지다. 이런 특이한 한동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다. 만약 나와 같이 충분한 고민 끝에 한동의 가치를 택한다면 알아주었으면 한다. 또 본인을 평가하는 숫자보다 본인은 훨씬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내가 고작 얼마나 더 앞서왔다고, 앞으로 대입을 겪을 이들에게 던지는 나의 말이 얼마만큼 힘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의 도움과 노력으로 원하던 공동체에 속하게 된 내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불안함으로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도 아쉬운 시간들 속에 살아가는, 마냥 상처만 받기에는 너무도 소중한 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밖에 없는 듯하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복음 전파하는 과학 교사의 꿈을 꾸다

유난히 해맑은 미소의 제이디는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진다. 이번 학기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한동에 온 그녀는 팀원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과학’과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국가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비전까지 갖게 되었다. 특히 이번 학기한동 공동체의 끈끈함을 느끼면서, 한국에서 더 공부할지에 대해 고민할 정도라고 한다. 그녀를 만나 한동에서의 삶에 대해 물어보았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제이디 에드워드(Jaydee Edwards)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한동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알칸사스에 있는 “존 브라운 대학교”에서 6학기째 화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과 제 모교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생긴 후로 한동대학교를 눈여겨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학기에 한동에 오게되어 정말 기쁩니다.

나에게 한동은?

한동은 ‘공동체’입니다. 한동인들이 잠을 설쳐가며 부지런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학생들 서로에게 학업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의 친구들과 어울리고, 찬양을 부르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중에 한동이 웃음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한동의 캠퍼스에는 수업과 모임, 그리고 동아리와 스포츠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각자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도, 이곳의 학생들은 더불어 살아가며 타인을 진정으로 돌봅니다. 저도 이곳의 친구들과 함께 정말 많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한동의 문화에는 학생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한동은 제게 ‘가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모든 인간들에게 ‘가정’을 선사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고, 앞으로도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한동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에게는 팀 친구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번 학기 저희 팀은 정말 놀라워요. 팀장, 부팀장은 팀을 이끄는 과정에서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헌신하고, 인내심을 갖고 대해 줍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한스트’부터 팀 모임, 이번 학기 전체에 있어서 항상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수업을 같이 듣거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는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에서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의 새로운 문화와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슬로건이 주는 의미는?

이 슬로건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슬로건을 학생들에게 꿈을 빨리 펼치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학생들이 졸업해서 전 세계로 나가서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동의 학생들은 이미 이곳 포항에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슬로건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개인이 세상을 바꾸고, 언제 다 바꾸냐”고 회의를 가지긴 하지만, 정작 “세상을 바꿔보자”라는 제안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 슬로건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에게 다른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어떻게, 언제, 무엇을 바꿀지는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꾸는 것은 특정 영역이나, 시대에 국한되지 않아요. 세상의 변화는 어떤 시간에도 모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한동의 슬로건은 한동의 학생, 교수들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는 삶의 자유함을 누릴 것이고, 각 사람을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모두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대로 세상을 바꾼다”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라는 슬로건은 한동의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이 슬로건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동의 도전적인 소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비전을 나눈다면?

주님께서서는 제가 중학교 때 “과학”과 사랑에 빠지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역사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즐거움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은, 일년 뒤에 있을 졸업 후의 다음 단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세계는 하나님과 창조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과 한국에 와서 주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배우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통해서 언젠가 복음이 닿지 않은 국가에서 ‘과학 선생님’으로 섬기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계획은 여전히 제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는 신실하신 분이기에 제가 계속해서 그를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면, 언젠가 제 미래의 계획을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호수아 장학금

한동대학교는 2015년 9월부터 재학생 중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들을 후원하기 위해 '여호수아 장학금'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많은 후원자의 사랑으로 2019학년도 1학기에 총 139명을 선발하고 125,118,000원을 지급하였다. 지난 3년간 총 943명에게 총 934,745,950원의 여호수아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수여식에서 장순흥 총장은 “많은 선교사·목회자의 자녀가 우리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목회자 부모님들이 많다는 것이기에,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한동에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한동에서 배출될 여호수아를 꿈꾸며, 또 심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호수아 장학금의 모금과 장학생 선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노력하시는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동 학생들이 늘 깨어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의 파수꾼이 되기를 기도한다. 직업과 관계없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한다.”며 격려했다.

장학금을 대표로 받은 권장근(전산전자 12) 학생은 “이렇게 여호수아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기회를 통해 한동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하며, 이 은혜를 나만 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남겼다. 김예나(글로벌리더십, 19) 장학생은 “다자녀 가정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부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호수아 장학금으로 부모님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 장학금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필요한 만나임을 믿고 늘 감사하는 신앙생활과 사랑에 빛진 자로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고 인정받는 학생이 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여호수아 장학금의 처음은 미약했지만, 후원자들의 헌신을 통해 그동안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한동의 재학생 중 약 19%가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이다. 모든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들이 여호수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가 되도록 돌볼 것이다. 이들이 그 비전을 기도로 준비하며, 정직하고 성실하며 유능한 크리스천 리더로 서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 장학금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도 속에 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낮선 땅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매일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한동에서 다른 친구들의 삶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또 저에게는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많은 인연들을 허락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찬규 (경영경제 15)



저와는 외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살아왔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그런 바탕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저의 비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동에서 나와 비슷한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길을 걷기 원하는 사람들을 돕는 후원자의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서예진 (글로벌리더십 19)



저는 소외 받는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 선교사의 삶을 결단한 부모님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접했습니다. 또한 교육으로 삶이 얼마나 바뀌는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닌 용기와 희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동대에서 쌓은 지식으로 부모님을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Why not change the world?' 라는 질문에 저는 큰 목소리로 'Yes, why not?' 라고 외쳐 봅니다.

정수산나 (전산전자 18)



솔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며 은혜로 채워주시니,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려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제가 있는 자리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선교사자녀와 목회자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나누며 'Rebuild Handong'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김소명(생명과학 14)



여호수아 장학생의 감사편지



후원자님께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고 큰 기쁨입니다.

이 장학금은 어떤 대가나 담보도 없이 제가 선교사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시는 선물이란 것을 압니다.

제가 느끼는 감사한 마음을 부족한 글솜씨로 감히 다 표현 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후원자님들의 마음과 헌금이 모여서 주어진 이 장학금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선교사인 부모님은 교회 후원금으로 사역과 생활비를 감당하시느라 저의 학비는 마음의 큰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인도 아이들을 위해 선교하라고 부모님께 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저를 위해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도움 없이 교회 이곳 저곳에서 조금씩 받은 용돈을 아껴가며 지금까지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친구들과처럼 새 옷을 사 입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는 것은 저에겐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지인들의 옷을 물려받고, 친구들에게 배부르다면서 카페에서 물만 들이키던 서러움을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돈이 절실했지만 공부를 하러 온 대학이니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 년간 감사하게도 교내 성적 장학금과 국가 장학금을 받아 학비를 해결했습니다.

성적 장학금을 받았을 때는 학비가 해결되어 언제나 풍성히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것도 잠시, 정말 부끄럽지만 학비를 내고 난 후 다시 빈털터리가 된 저는 또 다시 인간의 머리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새 학기에는 책도 사야 하는데……’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불평이 제 마음 속에서 꿈틀대며 다시 올라오려 할 때 여호수아 장학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믿음이 없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평하는 순간에도 저의 불평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체험했습니다.

여호수아 장학금 덕분에 이제는 생활비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온전히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물질적인 도움도 되었지만 저에게 주신 도움이 헛되지 않기 위해 힘을 내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 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용기도 얻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주신 도움을 잊지 않고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빛으로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선교사 자녀 C 드림

소중한 기회를 주신 후원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인 특성상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재학 중입니다.

그 중 저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스무 살 초반인 저희의 미성숙한 믿음으로는 도저히 염려하지 않고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학금은 이런 상황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던 목회자 자녀들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은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덕분에 가난이라는 꼬리표는 어린시절부터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제 또래에는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지만 저는 집이 없어 떠도는 설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설움이 무엇인지 압니다.

모두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성숙하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선의 것으로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저에게 하신 약속을 저버리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를 한동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진리와 학문을 함께 배우며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매일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학기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하루 하루를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자 자녀 A 드림

후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던 지역 교회에는 10명의 사랑스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저의 모습까지 교회 성도님들의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교회에 올라가야합니다. 또한 제가 아니면 교회에서 일할 청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로는 매주 대전에 올라가 저희 교회를 섬기는 일이 사실상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후원자님의 사랑이 저의 이런 모든 문제를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3살 때 교회 개척을 하셨고 물질의 축복은 우리 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전단지를 돌렸고 중학교 댄 유명 브랜드의 교복을 입고 싶어 야간 택배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저의 가정환경이 저의 생활력을 강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신다는 말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종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지도 못한 여호수아 장학금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 삶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앞으로 제 학업과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에는 후원자님의 사랑 또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장학금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기쁨, 축복, 평안, 물질, 구원이 있다는 말은 미친 소리라고.

하지만 저는 이 미친 소리에 제 모든 것을 다 걸어보려 합니다.

저의 고백과 각오가 흔들리지 않게 기도해주세요.

후원자님의 안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도하며!

목회자 자녀 B 드림

팀워크 장학생들의 감사

한동에는 전 세계 60여개의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며, 정직과 지식을 겸비한 하나님의 인재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믹뎀바 켈빈

(MKWIMBA Kelvin, 말라위)

저는 19세이고 세 형제 중 둘째입니다. 해외에서 유학하는 것은 언제나 제 꿈이었습니다. 꿈은 현실이 되었고 저는 ICT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매우 발달한 나라에서 공부하는 것은 제게 학생으로서만이 아니라 특히 ICT 전공자로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인 제게,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말라위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독려하고자 한 학기 동안 해외에서 유학할 5명의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였고, 저는 그 학생들 중 한 명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한동에 머물면서 저는 더 오래 머물며 학업을 이어가고 싶은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 6월에 졸업하고 나면 석사와 박사 공부를 위해 한국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도 그러했듯, 기술이 말라위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전공 지식을 더 쌓아서 말라위로 돌아가 꼭 활용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바탕이며 나눔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 꿈만 같습니다. 후원자님을 통해 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의 도움 없이는 저희가 이곳에 있지 못했을 것이며, 앞으로도 다른 학생들을 위해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시며 그의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그는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보상은 천국에 있기에, 후원자님께서 시작하신 선의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로이아 야쉬르

(SARIOIA Yashir, 파키스탄)

저는 파키스탄의 길거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기독교인은 소수에 불과한 파키스탄에서 저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었습니다. St. Peters 고등학교에 가서야 저는 제 믿음과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는 일상은 저의 영혼을 새롭게 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소수로 지내다보니 다른 사람 앞에서 항상 제가 저 답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에서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를 보낼 수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저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저는 공동체 일원으로부터 환영 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 비전은 제가 제 스스로가 될 수 있고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제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신앙을 다른 차원에서 탐구해보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재능을 더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제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의 참된 의미와 모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본국에 있을 때부터 저는 제가 학업 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명을 위해서도 지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언가 큰 것의 한 일원으로서 제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의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슬로건을 보았을 때, 저는 이 곳이 제가 속할 곳을 깨달았습니다. 이 곳의 일원이 되었던 것은 제 평생의 큰 영광입니다. 한동대학교에서의 경험은 제 신앙을 새롭게 했으며,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주었습니다. 장학금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고, 제가 그 수혜자 중 한 명이었던 사실에 저는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고, 정말 많이 배웠으며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한동 커뮤니티에게 최대한 많이 돌려주고 싶고,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서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과 한동에서의 제 경험에 대해 들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특히 하나님 곁에서
저는 지난 3년간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음을 깨달았습니다.

”



박진주

(PARK Monnier Isis, 아르헨티나)

저는 한동대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박진주입니다. 저는 Global Management와 상담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태어나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자랐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 입양되었고, 한국 문화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제 뿌리로부터 멀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일 때 한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동이 기독교 대학이라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 본국은 가톨릭 국가이고, 기독교 대학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제 가족과 친구들을 떠난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3년째, 저는 저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는 놀라운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많을 것 같아서 Global Management와 상담심리학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1살이 되던 2010년, 기독교인이 된 이래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향후 몇 년간 제가 결정할 모든 것들은 타인을 돕고자 하는 제 목표에 더 다가가게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 3년간 받은 장학금과 모든 학자금 지원 덕분에 저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학업과 대인관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매일 축복 받았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제 꿈과 목표를 향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제가 학업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배울 것이 정말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인격적으로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한동은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특히 하나님 곁에서 저는 지난 3년간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제가 속한 곳을 찾아가는 것을 꿈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과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것에 항상 긍정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에 어머니께서는 한국으로 갈 것을 제게 권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르헨티나/이탈리아계이고, 저는 지난 18년 동안 평범한 아르헨티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에 교회를 갈 때 빼고는 한국을 접할 기회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2017년 제가 처음 한동에 왔을 때, 저는 제가 어딘가에 속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정답은 찾지 못했지만, 제 인생의 걱정과 질문들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가끔은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 곳으로 데려 오셨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곳으로 인도하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어려움과 고통을 떠올려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항상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를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동대학교는 짧은 시간 동안 저의 정체성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지난 3년간의 모든 일에 다 목적이 있었다고 믿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도 더욱 최선을 다해 학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암 딘

(MARIAM Dean, 파키스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
하시길 바랍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고 그 동안 제게 보여주신 사랑
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 편지를 드립니다. 제게 지원해
주신 장학금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기에 온 마음을 다해 후원자
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게 장학금을 지
원해 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제게 베풀어주신 친절과 자비로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후
원자님 덕분에 저희 유학생들은 무사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러한 멋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저는 많은 바람을 가지고 있
었고, 후원자님의 도움과 사랑 덕분에 저는 제 모든 바람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원자님의 선행을 다 알고 계시다고 믿으
며, 살아가는 동안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이를
보답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구절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에게 복이 있음이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
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
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
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41:1~4)”라
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저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다른 많
은 학생들을 도와주신 모든 부서에게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제가 조국으로 갖고 돌아갈 많은 긍정적인 것들과 지식을
쌓게 해준 이 멋진 기회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
니다. 감사합니다!



마페니 비툼비코

(MAFENI Vitumbiko, 말라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
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
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한일서 3:16-18)”

저는 ICT를 전공하고 있고 3학년입니다. 지난 4개월 간 한동대학교
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저를 후원 해주신 친절과 사랑에
감사를 표하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세계 반대편을 경험하고 제 전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말라위 밖에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그럴 기
회가 없었습니다. 2016년 대학교에 입학할 당시, 부총장님으로부터
훌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한동대학교에서 공부하
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게
부르심과 동기부여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기회는 저를 여러 방면으로 도왔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문화와
기술 환경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ICT 분야에서 한 층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국에서의 제 동료들을 가르칠 수 있을 뿐만
이 아니라 말라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컴퓨터 능력 또한 매우 발전했습니다. 이는 후원
자분의 후원과 사랑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조국으로 갖고 돌아갈 많은 긍정적인 것들과 지식을 쌓게 해 준
이 멋진 기회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



다바더르지 테물

(DAVAADORJ Temuul, 몽골)

2020년 졸업 이후, 저는 공부를 위해 한국에 돌아오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교의 강사가 되어 제 전공지식으로 말라위의 많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말라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장학금을 통해 제가 매우 축복 받았음을 느낍니다. 말라위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이를 나눔으로써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이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후원자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 어떻게 축복하실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돌보시는 지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게 베푸신 은혜는 정말 특별한 것이며, 저는 평생 이를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보여주신 사랑을 후원자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가 느끼는 감사를 표현할 더 좋은 단어들이 있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제 이름은 테물입니다.

저는 20살이고 교환학생으로 한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취미는 사이클링과 컴퓨터입니다. 현재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남학생입니다. 저는 세상이 제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상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오로지 저 스스로를 해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을 존경하는 한 가지는 그들의 근면성입니다. 저는 항상 근면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 옆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은 제게 많은 소중한 교훈을 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아시아의 대표적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을 찾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은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는데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또한 기독교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한국은 상당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한동에서 공부하는 동안 저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남겨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소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을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동에서 저는 기독교에 대해 더 많이 듣고 배울 수 있었고, 원할 때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제 생각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멋진 일들은 후원자님 덕분에 가능했기에 저는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동에서 누리는 기쁨을 함께 느끼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동준

글·그림 이해리

시험이 다가오자,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새벽버스를 타고 가는 날이 많아졌다.



그때는 몸과 마음이 지쳐 어서 집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뿐이었다.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지...

피곤해..



그런데 버스를 올라탄 순간 기사님의 인사가 들려왔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새벽 2시가 넘는 시간. 잔뜩 지쳐 있었는데 그 작은 인사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다

네!

감사합니다!



기사님은 버스를 타는 모든 학생들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



그날은 기사님의 인사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한동에 와서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인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민망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그냥 지나쳤다



기사님의 따뜻한 인사를 받은 날,



나는 인사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지 느꼈다.



나도 그런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주고 싶어 다시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시작했다



한동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후원 안내

갈대상자(일반후원)

작지만 큰 대학,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지도자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매월 1만원 이상, 혹은 일시 후원으로 한동을 더욱 견고히 엮어가는 갈대상자 후원자를 찾습니다.

(학)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910-910002-55405

7000 갈대상자(일반후원)

급변하는 이 시대에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적 필요가 절실한 한동을 위해 중보하며 후원하는 교회, 기관, 개인 등이 참여하는 캠페인입니다. 매년 100만원 이상 후원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학)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910-910002-55405

한동문(졸업동문 대상)

한동문은 오직 '한동의 졸업 동문' 만 참여할 수 있는 갈대상자 후원 캠페인으로 매월 1만원 이상 후원 가능합니다. 한동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 줄 바로 그 사람, 한동의 졸업생, 한동문을 기다립니다.

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505-094401-00104

한동천사(재학생 대상)

'한동'의 밝은 미래를 '천'원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한동천사는 매월 1천원 이상 후원하는 재학생 갈대상자 캠페인입니다. 한동천사에 참여함으로 오늘 한동과 내일의 한동을 이어가는 한동 사랑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505-094401-00104

여호수아 장학금(목회자·선교사 자녀 후원)

한동의 목회자·선교사 자녀(재학생의 약 20%, 2015년 기준)가 한국교회와 열방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가 되도록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것처럼 이들을 응원하고 중보할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후원자와 1:1 매칭, 생활장학금 1년 120만원/등록장학금 1년 600만원)

한동대학교 여호수아 : 하나은행 910-910002-68604

한동만나(재학생 식비 후원)

한동만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후원자와 한동 공동체가 함께 채워, 도움이 꼭 필요한 학생들은 아너코드에 따라 이용하는 사랑의 위로, 따뜻한 한 끼입니다. 1만원 후원하시면 약 네 끼를 재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한동 첫 열매(첫 월급)

첫 열매는 수확한 첫 소산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아벨의 제사와 같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첫 월급입니다. 졸업한 선배들이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학교와 후배들을 위해 기부하는 후원프로그램입니다.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팀워크(교육 선교 프로그램)

한동에는 전 세계 60여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지식과 정작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사역자로 이끌어준 바울과 같이 개발도상국과 미전도지역에 파송될 한동의 외국인 유학생들, 이 시대의 청년 디모데들에게 바울이 되어주십시오.

한동대학교 팀워크 : 하나은행 518-910023-11205

건축기금

한동대는 대부분 재학생들이 캠퍼스 내 생활관에서 함께 살고, 함께 배워가며 성장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 캠퍼스 내 생활관부터 도서관, 강 의실 등 다양한 건물이 필요합니다.

한동대학교 건축기금 : 하나은행 518-910023-12905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기부자님께서 특정한 사용용도를 지정하시는 기부금입니다. 기부자님의 뜻이 담긴 만큼 지정 기부금은 한동과 학생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하용조 장학금(장학, 연구 및 국제화 활동 후원)

부드럽고 따뜻한 목회자, 예수의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한 설교자,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순종했던 비전 메이커였던故하용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과 같은 비전의 사람을 만들어갈 후원자를 기다립니다.

한동대학교-하용조기금 : 하나은행 132-890008-58904

※ 갈대상자, 7000갈대상자는 법인 및 법인의 대학 운영 등으로 사용되며, 그 외 기부금은 지정하신 목적에 따라 대학에 사용됩니다.

※ 발전기금과 세금 : 출연하신 기부금은 100% '법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한동대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arang.handong.edu>)에서 발급

후원관련 문의

한동대학교 대외협력팀

(학)한동대학교 후원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전화:054-260-1063~7

팩스:054-260-1069

E-mail:sarang@handong.edu

한동대학교 서울 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8-13 라임타워 12층

전화:02-3443-3232

팩스:02-3446-3939

E-mail:hguseoul@handong.edu

한동대학교 미주 후원회

Handong International Foundation Inc. (HIFI)

3200 Westhurst Lane, Oakton, VA 22124-1748 U.S.A

Tel:703-627-8050

E-mail:ksc@bskb.com

한동대학교 7000 갈대상자 **NAVER** 7000 갈대상자 ▾

후원금액 1년 100만원

사용목적 한동대학교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

참여방법 신청서 문자발송 010-9260-1063 | 온라인, 스마트폰 <http://sarang.handong.edu/7000> | 우편발송

입금계좌 하나은행 910-910002-55405 (학) 한동대학교

후원문의 (학)한동대학교 후원팀 054-260-1063 sarang@handong.edu

한동대학교는 또 하나의 대학이 아닙니다



믿음의 학생들이 모입니다

크리스천 비율이 약 89%로 하루의 처음과 끝이 예배이며, 기도로 강의를 시작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전공, 학년 구분없이 30-40명이 교수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 캠퍼스와 생활관에서 전인교육을 받습니다.



선교사, 목회자 자녀들의 훈련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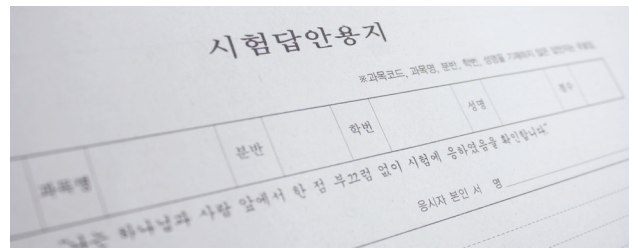
재학생의 약 20%가 선교사, 목회자 자녀입니다. 사역 현장에서 익힌 언어와 다양한 문화 경험, 친화력 등의 강점과 함께 한동에서 훈련받으며 글로벌 리더, 부모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사역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행복합니다

자신의 비전을 따라 온 학생들은 무전공으로 입학하여 본인의 적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합니다. 대학의 학생만족도를 나타내는 한동대의 중도탈락률은 1.3%로 전국 사립대 중 가장 낮아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출처 : 대학 알리미 '2016년 대학 중도탈락 학생 현황')



정직을 배웁니다

무감독양심시험으로 대표되는 한동명예제도와 끼니를 거르는 학생을 위해 본인의 양심에 따라 식사하는 한동만나는 한동의 정직한 문화를 보여줍니다.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지성·인성·영성 교육을 통하여 민족과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한동대학교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필요가 절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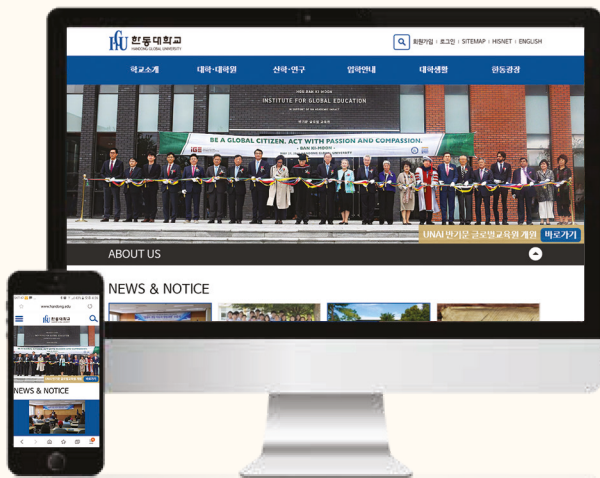
Why not change the world?



신규 기부자 명단

2019. 1. 1 ~ 2019. 6. 30, 237명

강명란	강민균	강선영	강숙영	강윤선	강정원	강준원	강현우	강희정	경현석
공기인	구은정	구주은	권동인	권정성	권혁재	권혁주	기용환	김가희	김강,김옥례
김경옥	김권	김기봉	김남진	김대근	김대환	김대환	김동범	김민영	김병호
김선엽	김성숙	김소영	김숙령	김승열	김신욱	김신희	김예덴	김연희	김영한
김영훈	김예지	김용범	김원채	김은민	김은이	김은주	김정수,허경자	김정숙	김주영
김주왕	김주은	김주는	김진영	김진철,이미경	김창주	김철진	김춘자	김태철	김현기
김현진	김형중	김혜영	김홍기	남세진	노재경	류승연	명미정	문영미	문임자
문지영	문평길	박경옥	박기남	박민주	박병운	박병홍	박서현	박석균	박세종
박세찬	박승우	박시온	박영옥	박정호	박진생	박진숙	백하영	변창성	서덕현
서범춘	서상현	서준모	손요한	송립	송명희	송영미	송지웅	신충용	신혜령
심양섭	심재윤	안문숙	안태현	양재훈	여주은	오은혜	오은혜	오지인	원미옥
유명종	유선민	유성애	유양원	유용상	유창운	윤봉요	윤새은	윤성훈	윤연중
윤희원	이경은	이광형	이규상	이규철	이대노	이덕영	이무열	이미소	이미진
이민정	이민주	이봉철	이상순	이숙희	이승현	이영성	이영숙	이영승	이우빈
이은영	이은울	이은희	이임태	이장석	이정란	이정미	이정석	이정은	이지성
이지숙	이진선	이창선	이충현	이하경	이희생	임호남	장태연	전영애	전용희
전재식	정거연	정나빈	정다람	정도웅	정석주	정옥심	정은식	정주희	정희동
조문주	조수빈	조영옥	조창환	조해완	주동민	주수민	차윤선	채성순	채성희
채수환	채정화	천하람	최광진	최남엽	최상규	최선	최성경	최성진	최양귀
최영은	최은희	최호정	하성수	하주영	한두림	한선주	허근	허순자	현미란
홍승주	홍운정	홍주희	황양미	황영숙	황은찬				
(주)길리	(주)에스투글로트레이드	(주)에스파				교양특론수업		기독교대한감리회 선한목자교회	
김미란(꿈꾸는교회)	다음세대교회(박승현)	대구삼일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청진교회 권사회(김신자)			
대구침산제일교회	박영숙	빛샘교회				사단법인 유엔협회세계연맹		신길성결교회	
신앙특론수업	예성물류(주) 안상현	에스에이치 인터내셔널(이세혁)				오슬랜드온누리교회		용인학부모기도회	
이수노무법인	임자진리교회	저동침례교회(최지혜)				제자들교회		주식회사 로웬	
주식회사 아이디에스글로벌	총회MK사역위원회	프리어스(freus)				한동오케스트라			



발전기금 홈페이지에 가입하세요

<http://sarang.handong.edu>에 가입하시면
후원 정보 열람, 기본정보 변경, 납부정보 변경, 기부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후원 문의 및 신청방법



전화 054.260.1063



모바일 010-9260-1063



이메일 sarang@handong.edu



팩스 054.260.1069

물에 타먹는 유산균

위드워터 출시

한동샘은 한동대학교의 첫 고유 브랜드입니다.



제품 개발자 '빌헬름 홀잡펠' 박사 Dr. Wilhelm H. Holzapfel
현) 한동대학교 석좌교수

한동샘 판매수익은 한동대학교 교육/교육ODA/장학사업과
홀잡펠 연구소의 연구진흥 등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기는 일에 사용됩니다

소비자 상담실 1600-4211
홈 페이지 www.handongsam.com
웹 메 일 handongsam.seeamiracle@gmail.com

명절선물 및 대량구입 문의는 소비자 상담실로 연락바랍니다

한동샘에서
처음 선보이는 제품을
지금 이벤트와 함께
만나보세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한동은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